



東國大同窓會報

발행인 : 박대신 | 편집인 : 이계홍 | 03149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7길 12, 백상빌딩 302호 (재)동국장학회 | T. 02) 733-0303 F. 02) 733-0306 | 인쇄 : (주)한우리SJM

2019년 (불기 2562년) 5월 25일 (토)

<http://dongguk.or.kr>

제248호

박대신 28대 총동창회장 취임



본회는 지난 3월28일 모교 중강당에서 정기총회를 열어 제28대 회장에 박대신(국어국문69, (주)동우 회장) 수석부회장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인터뷰 6,7면)

신입감사에는 김수창(불교65, 前 육군 대학 교수) 남택호(경영80, 공인회계사) 윤병관(화학공학82, 이지상사 대표이사) 동문이 각각 선임됐다. 정기이사회 및 총회에서는 회장 및 감사추대위원회에서 추천한 회장 및 감사 후보자를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본회는 이날 신·구 회장 이·취임식

도 함께 가졌다.

이날 총회는 당일은 물론 행사 후에도 많은 동문들로부터 역대 어느때보다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모습을 보여 동국인의 품위와 자부심이 넘쳐났다는 찬사가 쏟아졌다.

박 신입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모교 개교 113주년, 동창회 101년의 역사와 전통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모교, 학교법인, 총동창회가 서로간 협력하고 상생함으로써 동국의 위상을 높이는데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26,27대회장으로 4년간 봉사해온

전영화 회장은 이임인사를 통해 “동창회 안정과 장학사업 정상화 등 크고 작은 일에 용기를 불어넣어주신 동문들께 감사 드린다”면서 “동창회가 더 강해져 동국의 미래를 밝히는 동창회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성이 모교 총장은 축사를 통해 “지난 2월 말 총장이·취임식에 이어 오늘 동창회장이·취임식도 평화롭게 진행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면서 “동창회관이 입주하게 될 로터스관 완공시까지 한시적으로 동창회 사무실을 충무로영상센터에 배치하여 학교와 동창회관 소통창구

로 활용하겠다”고 천명해 우리와 같은 박수를 받았다.

정기이사회 및 총회에서는 △2018년도 회무 및 결산보고 △201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킨뒤 총회에서 제28대 신입 회장 및 감사를 선출했다.

지난 2018 회계연도 감사보고에서 고용규 수석감사는 ‘적정의견’을 냈고, 회무에 대해서도 회칙이나 법령 등에 위배된 사실이 없다고 발표했다. 2018 회계연도에서 2019 회계연도 이월금은 1억6백여만원이었다. <2면에서 계속>

6월3일 총동창회관 ‘충무로영상센터’로 이전

우리 총동창회가 드디어 모교 충무로 영상센터 건물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다. 박대신 총동창회장과 윤성이 총장은 동창회관의 입주에 따른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총동창회는 6월1일(토) 이사를 한 뒤,

6월3일(월)부터 새 사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한다. 새 사무실은 충무로영상센터 본관 10층(중구 퇴계로 36길2)으로 실면적은 79평 규모이며, 정식 입주식은 실내 인테리어와 사인보드 설치 등을 감안해 10월중으로 예정하고 있다. 지하철 3,4

호선이 통과하는 충무로역과 1분거리에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나 동문들의 동창회 방문이 훨씬 용이해졌다.

충무로영상센터 사무실은 정식 동창회관이 들어갈 혜화문 인근 로터스관(신축 예정) 입주시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한편 기존 인사동 사무실은 임대를 통해 동창회 수익금으로 편입된다.

총동창회 주소 변경

04626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36길 2
동국대충무로영상센터 본관 10층
T. 02-733-0303 / F. 733-0306

정기이사회 및 정기총회 성료

400명 참석 ... 손기범 등 6명에게 공로패 수여



▲ 2019년도 정기총회에 400여명이 참석해 모교 중강당을 가득 메웠다.



김수창 감사



남택호 감사



윤병관 감사

<1면에서 이어짐>

총회에서는 재능기부·자원봉사를 통해 동문 화합과 동창회 발전에 기여한 △대구경북동창회장 손기범(91행원) △본회 지도위원 홍훈유(농학65) △동행산악회·동행라이온스회장 홍종표(행원94) △본회 소통위원장 김종필(82행정) △동불회장 사기순(84국문) △본회 상임부회장 차연신(연영85) 동문에게 각각 공로패와 부상을 수여했다.

총회에는 미국에서 일시 귀국한 이민휘(정치52) 고문을 비롯 △선진규(불교

55) △임덕규(법학56) △심경모(영문57) △김성재(정치58) △조희영(경영59) △서영준(법학64) 고문과 역대 회장인 △23대 원용선 △24대 전순표 △25대 송석환 회장 등 400여명이 참석, 자리를 빛냈다.

총회가 끝난 뒤 상록원 3층 교직원식당으로 이동하여 연회를 즐겼다.

한편 이날 만찬은 민흥기 동국장학회 이사가 제공했으며, 이사회 및 총회 자료책자는 여자동창회(회장=김애주)에서 제작비를 부담했다. 참석자 전원에게는 기념품으로 대형 타올을 제공했다.



▲ 공로패 수상자들 (왼쪽부터 차연신, 사기순, 김종필, 전영화 회장, 홍종표, 홍훈유, 손기범 동문)

이사회 및 총회 상정안 의결

2019-2차 상임위원회 개최

본회 2019년도 2차 상임위원회가 3월 20일 동창회 사무실에서 열려 △2018년도 회무보고 및 결산안 △201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제28대 신입 회장 및 감사 추대보고 △공로패 수여안 등 정기이사회 및 총회에 상정할 안건들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보고사항으로는 △모교 18대 보광총장 이임식 및 19대 윤성이 총장 취임식 거행 △재단법인 동국장학회 이사회 개최 △모교 학위수여식 거행 △모교 입학식 거행 △초대 동창회장 만해 한용운 선양사업 후원 △월제 해답스님 대고려 불화전시회 주최 등을 설명했다.

전영화 제26·27대 총동창회장 이임사

“강한 동창회 만든 것이 보람”

존경하는 선후배 동문 여러분!

먼저 지난 4년간 희망적인 총동창회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30만 동문과 학교당국에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나 없이 봉사해야 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장학사업은 한때 인수인계과정에서 혼란과 진통도 겪었지만 전순표 동국장학회 이사장님과 장학회 이사들의 헌신적인 참여로 정상화 단

계를 진입하여 2018년부터 재학생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오랜 숙원사업인 동창회관은 학교측의 로터스관 건립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우선 필동에 있는 총무로영상센터 건물로 입주하는 방안을 학교법인 및 학교당국과 구체적 협의를 통해 빠른 기간내에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 때마다 지금의 동창회를 일으켜 세운 것은 동문님들의 뜨거운 사랑과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모교는 개교 113주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사회 각계각층에 훌륭한 인재들을 배출한 명문대학중의 하나입니다.

동창회는 이러한 모교의 명예와 위상을 드높이는 한 축으로서 구성원들에게 자부심을 불어넣으며 더 나은 미래를 모색하기 위해 매진해 왔습니다.

매년 5월8일, 개교기념식에서는 애국가에 나오는 “남산위의 저 소나무”처럼 언제나 청청하여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중심, 세계의 중심으로 우뚝서 있는 민족사학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선후배님의 원력과 열정이 모교의 전통 계승과 희망을 줄 수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신입생을 맞이하는 입학식에서는 삼보의 언덕에서 불멸의 동국인 만해 한용운의 자유와 독립정신, 4.19 당시 선두에서 불의에 항거하는 정의의 외침, 세계 산악사에 빛나는 박영석 동문의 도전정신, 예체능을 비롯한 각분야 동문들의 뛰어난 사회 진출 등을 거울 삼아 시대의 주인공으로서 새로운 역할을 당부하였습니다.

신입 동창회원을 맞이하는 졸업식에서는 “동문들의 사회적 평판은 곧 동국의 평판으로 회합하는 만큼, 한번 더 모교를 생각하고 동창회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모두가 자랑스러워하는 동국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한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우리 동창회 모임에서는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나 말하지 말고, 우리 모두 작은 꽃이 모이면 훌륭한 꽃동산을 만들 수 있다”며 동문 한 분, 한 분이 함께 만들어가는 자랑스러운 동창회로 거듭나자고 천명하였습니다.

동국은 강하지만 더 강한 동국을 만드는 원동력은 참여와 화합을 통해 너

나 없이 봉사해야 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이와 함께 슬로건으로 내걸었던 “참여하는 동창회, 소통과 상생하는 동창회, 자긍심 넘치는 동창회”를 위해서도 동문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 속에 재정 안정을 비롯 여러 사업을 원만히 성취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초대 동창회장 만해 한용운 묘소 참배 및 생거지 심우장 행사, 동우탑 및 수유리 4.19탑 참배, 동국인 등산대회, 동문기업체 방문, 안보현장 견학, 동문 연예인 출연 영화·연극 단체관람, 단위동창회 격려, 총학생회와 재학생 격려, SNS 활성화, 부처님오신날 주요 사찰 연등 달기 등 대소 행사도 많았습니다.

올해, 우리 동창회는 설립 101주년을 맞습니다. 지난 1세기의 성과와 보람을 토대로 다가올 1세기를 예비하고 발전시키는 일은 피할 수 없는 과제들입니다.

이제는 장강의 뒷물이 앞물을 밀어내듯이 제가 떠난 자리를 새 집행부가 뒤를 이어 새로운 역사 창조에 매진할 차례입니다.

제가 함께 한 동창회에서 이룬 성과들을 바탕으로 후임들이 동문사회의 우의와 화합을 통해서 더 많은 봉사과 도약을 이루어 나가도록 동문 여러분께서 변함없이 적극 참여해주시기를 당부합니다.

미당 서정주 대 선배님의 시구처럼 우리들에게 “동국은 영원한 고향중의 고향”입니다. 면면이 이어질 동창회의 역동적인 장정에 여러 동문님들의 지속적인 애정과 성원을 기대합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신 동문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동국 발전과 선후배 동문님들의 건승과 행운을 기원하는 한 사람으로 남겠습니다.

올해 장학금 지급안 승인

장학회, 오정석 동문 신임 이사로

재단법인 동국장학회 2019-1차 회의가 3월7일 정오 앰배서더호텔 홍보각에서 열려 '2019년도 장학금 지급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날 승인된 장학금 지급 총액은 1억4백만원이며 서울캠퍼스 35명, 경주캠퍼스 17명 등 52명에게 1인당 200만원씩을 전달한다. 장학금 수여식은 서울캠퍼스가 3월28일 모교 중강당에서, 경주캠퍼스는 3월21일 100주년기념관 중회의실에서 각각 갖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이병국 이사가 사임함에 따라 후임에 오정석(농학72) 동문을 새로 선임했다.

한편 서울캠퍼스 장학금 수여식은 총동창회 정기총회 직전행사로 치러 많은 동문들이 지켜보도록 했으며, 이 자리에서는 정치외교학교동창회 장학금 및 여자총동창회 장학금 수여식도 함께 진행하기로 동의했다.

경주캠퍼스 장학금 수여식



재단법인동국장학회 경주캠퍼스 장학금 수여식이 이대원 경주캠퍼스총장, 문선배 동국장학회 이사, 정한민 본회 사무총장, 조덕형 직할경주동창회장과 교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3월21일 오후 4시 백주년기념관 중회의실에서 있었다.

이번 장학금은 어려운 가정형편 속에서도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17명에게 200만원씩 총 3400만원을 지급했다.

문선배 동국장학회 이사는 장학증서를 수여한뒤 "후배 여러분들이 동국인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용맹정진하기 바란다"며 "앞으로 사회에 진출해서 받는 즐거움보다 베풀 수 있을 때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는 동국인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경주캠퍼스 장학생 (17명)

△박차연(가정교육 3년) △최경환(경영학 4년) △김현우(스포츠과학 2년) △이후빈(국사학 2년) △박종문(수학교육 3년) △고영래(의생명공학 4년) △김두홍(유아교육 4년) △김힉찬(중어중문학 4년) △권혜성(불교학 3년) △윤원영(불교 아동보육학 4년) △박창균(일어일문학 4년) △박성민(전자정보통신공학 4년) △임광목(행정경찰공공학 2년) △최유라(호텔관광경영학 4년) △김민지(유아교육 3년) △박여진(한의학 2년) △이정화(의학 2년)

동국장학금 52명에게 1억4백만원 지급

정외과 · 여자동창회도 전달식 함께 가져



▲ 서울캠퍼스 장학금 수여식을 마치고 동국장학회 임원들과 장학생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총동창회에서 설립한 재단법인 동국장학회(이사장=전순표)의 2019학년도 1학기 장학금 수여식이 서울과 경주에서 각 캠퍼스 별로 개최됐다. 동국장학회는 이번 장학금으로 서울캠퍼스 35명, 경주캠퍼스 17명에게 각 2백만원씩 총 1억4백만원을 지급했다.

서울캠퍼스 장학금 수여식은 3월28일 오후 6시 모교 중강당에서 열린 본회 정기총회 식전 행사로 진행되어 4백여 동문 선배들이 지켜보았다. 장학금과 장학증서는 전순표 이사장이 직접 전달하며 후배들을 격려했다.

또 이날 수여식 자리에서는 총동창회와 정외과동창회(회장 고용규, (주)동우 대표이사)와 여자총동창회(회장 김애주, 모교 교수)가 독자적으로 모은 장학금을 각각 전달하는 순서도 가졌다.

전순표 이사장은 "이 장학금은 모교 발전과 후배들이 잘되길 바라는 동문들의 염원과 사랑이 담겼다"면서 "선배들의 고귀한 정성을 새겨 더욱 면학 정진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은 "선배님들의 고귀한 뜻을 새기며 자랑스러운 후배가 되겠습니다"라고 감사편지를 보내왔다.



▲ 정치외교학과 동창회 장학금 수여.



▲ 여자총동창회 장학금 수여.

◆ 서울캠퍼스 장학생 (35명)

△박차연(불교학부 2년) △차수민(중어중문 4년) △최대기(수학 3년) △홍진호(법학 3년) △정성운(경제학 4년) △김동욱(경찰학 4년) △송규석(경영학 4년) △한동희(생명과학 2년) △이우승(산업시스템공학 3년) △황해진(지리교육 3년) △이승희(한국화 4년) △박정윤(약학 4년) △최윤희(글로벌무역학 2년) △배진우(컴퓨터공학 3년) △고현미(미술치료 5학기) △인혜리(행정학 3년) △박지환(기계로봇에너지공학 4년) △문혜빈(화학 4년) △박성빈(불교학 4년) △박혁주(사회복지학 3년) △신용운(북한학 4년) △신지윤(경찰행정학 3년) △서인성(정치외교학 3년) △서소령(경찰행정학 4년) △

안정호(화학 4년) △박현호(바이오환경과학 4년) △이동민(스포츠문화학 4년) △홍경스님(불교학과 2학기) △한순택(건축공학 4년) △고근영(경영정보학 3년) △김태호(경찰학 4년) △허윤성(산업시스템공학 2년) △배병준(경찰행정학 4년) △문수영(북한학 3년)

◆ 총동창회 장학금 △최종원(법학 3년)

◆ 정치외교학교동창회 장학금 △이현주(정치외교학 4년)

◆ 여자동창회 장학금 △이소희(화학 4년) △이슬기(국어교육 3년)

동국장학회 장학기금 기탁

전영화 前 회장 2천만원

고문 홍파스님, 박대신 회장
오정석 상임부회장 각 1천만원

전영화(경영65) 전 총동창회장이 4월 18일 재단법인동국장학회에 장학기금으로 2천만원을 기탁했다.

또한 본회 고문 홍파스님(불교63)은 3월7일 1천만원, 오정석(농학72) 상임부회장은 3월19일 1천만원, 박대신(국문

69) 총동창회장은 4월12일 1천만원을 동국장학회에 각각 기탁했다. 전영화 전 동창회장은 동국장학회 안정화를 건언하였으며, 본회 발전기금으로 4천만원을 출연한 바 있다.

홍파스님과 박대신 동창회장은 지난해에 동국장학회 장학기금으로 각각 1천만원씩을 출연한데 이어 이번에 1천만원을 추가 기부했다.

오정석 동문은 지난 3월7일 동국장학회 이사로 영입되면서 장학기금 확충에 참여했다.

82학번 장학금 2천만원

82학번동창회 김종필 동문 등 임원진 6명은 3월 8일(금) 오후 2시 모교를 찾아 윤성이 총장에게 후배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써 달라며 2천만원을 전달했다.

신임 윤성이 총장 취임이래 첫 기부다. 동문사회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82학번동창회는 "윤성이 총장 취임을 기념해 앞으로 많은 동문들의 기부가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동기들끼리 십시일반 정성을 모았다. 모교의 위상 제고와 동문사회 화합을 위해 힘써 달라"고 밝혔다.

제28대 동창회 첫 상임위원회

단위동창회 임원 워크숍 갖기로



▲ 제28대 첫 상임위원회는 올해 주요사업과 역동적인 동창회 활동방안 등을 논의했다.

제28대 동창회가 새 상임위원회를 구성, 5월16일 저녁 동창회 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힘찬 출발을 알렸다.

박대신 회장은 상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투철한 사명감으로 동국발전전에 함께 봉사하자”고 당부했다.

안건으로는 △고문 추대 △조직강화 방안 △임원 및 일반회비 납부를 제고 △동창회관 충무로영상센터 이전의 건 등을 상정해 의결, 또는 보충 의견을 냈다.

상임위원회 역할에 대해 위원들은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역할 분담으로 업무효율을 높이자”는데 공감하고 분과위원회 조속 설치를 주문했다.

또 모교 법인이사 파송 T/F팀을 구성

해서 관례적으로 선임되어온 동창회 대표의 모교법인 이사회 참여를 촉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조직강화를 위해서는 단위동창회 활동사항을 원점에서 재파악한 뒤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한 단위동창회 임원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기로 동의했다.

한편 동창회관 충무로영상센터 이전문제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모교에서 신축할 건물(로터스관 등)에 동창회가 입주하여 동창회관으로 사용하기 전의 임시 사무실로 사용하겠다고 보고됐다.

기타 사항으로는 △상임위원회의 역할 논의 △학교법인 임원에 동창회 대표 파송 △향후 주요행사계획 등을 논의했다.

“법인·대학·동창회 하나되자”

박대신 회장 이사장·총장실 신임 인사차 예방



▲ 신임 인사차 학교법인 이사장 자광스님(사진 가운데)을 예방한 박대신 회장(오른쪽 세번째)

박대신 제28대 총동창회장은 지난 4월 8일 오전 신임 인사차 모교 자광 이사장 스님과 윤성이 총장을 차례로 예방, 환담했다.

박회장은 이사장과 총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동창회와 모교는 동국발전이라

는 공동목표를 가지고 있다. 서로 화합하고 협력하여 명문대학의 위상을 드높이자”고 말했다.

이번 예방에는 김종필 상임부회장과 신관호 사무국장이 동행했다.

“동국 혼 담긴 만해마을 이용하세요”

시설 이용 40% 할인 ... 모교와 업무 협약 체결



▲ 본회와 모교 간 백담사 만해마을 업무협약 체결로 동문들이 할인혜택을 받게 되었다.

우리 동문들이 모교의 백담사 만해마을에서 숙박 및 세미나 등을 위한 제반시설을 이용할 때 40%의 획기적인 할인혜택을 받게 되었다.

본회 박대신 회장과 윤성이 모교 총장은 4월22일 모교 본관 4층 로터스홀에서 만해마을 시설 이용시 동문우대 혜택을 골자로 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만해마을 캠퍼스교육원 운영 활성화 및 총동창회 회원의 복지증

진을 위한 것으로 동창회와 모교간 상생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협약식에는 본회에서 박대신 회장을 비롯 조충미 상임부회장, 윤병관 감사, 신관호 사무국장이, 모교측에서는 윤성이 총장을 대신한 한희원 교무부총장과 기획부총장 종호스님, 박정훈 만해마을 캠퍼스교육원장, 방중혁 기획실장 등이 참석했다.

‘동국가족 화합과 전진의 밤’

송석환·전영화 전임회장에게 공로패 전달



▲ ‘아름다운 동행’을 다짐한 화합과 전진의 밤 행사가 성황리에 열렸다.

본회 회장 이·취임에 즈음한 ‘동국가족 화합과 전진의 밤’ 행사가 제27대 상임위원회 주최로 4월18일 오후 6시 지하철 종각역 인근 파노라마뷔페에서 화기애애하게 열렸다.

동창회 안정기반 구축과 위상 제고에 공헌한 전임 동창회장들의 재임중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는 박대신 28대 회장이 주최측을 대표해서 제25대 송석환 회장과 제26·27대 전영화 회장에게 각각 공로패와 순금 행운의 열쇠를 전달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박대신 회장은 초청인사에서 “오늘 이 자리는 우리 동창회의 발전을 자축하고

새로운 미래를 결의하는 뜻깊은 자리이다. 동창회 활동이 더욱 신뢰받고 보람과 가치를 느끼는 모두의 귀의처가 되도록 동문 여러분들께서 주인의식으로 계속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동창회 발전에 앞장서서 봉사했던 상임위원들과 각 직능단체, 여자동창회, 80년대 학번 등 110명이 참석했다.

한편 저녁 만찬은 부산에서 일부러 상경한 문선배 상임부회장이 제공했으며, 공로패와 부상 경비는 27대 상임부회장들이 십시일반 출연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국회 초청

동국 7080 화합의 밤 열어

홍영표(철학78)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초청 ‘동국7080 화합의 밤’ 행사가 4월24일 저녁 이계문(산공80, 서민금융진흥원장) 7080회장을 비롯 회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렸다.

홍영표 동문은 국정현안 업무로 매우

바쁜 와중에도 동국가족을 위해 시간을 할애해 큰 박수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회원들은 “우리 동문사회의 중심축이자 에너지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힘을 모아 나가자”고 다짐하며 덕담과 격려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송석환 고문 회관기금 1억원

윤성이 총장에게 전달 ... 누적 기부 2억8천여만원



▲ 송석환 고문(사진 오른쪽)은 윤성이 모교 총장을 예방, 동창회관 건립기금 1억원을 전달했다.

송석환(농경64, 동진기업 회장) 제25대 총동창회장이 5월23일 윤성이 총장에게 동창회관건립기금 1억원을 전달했다.

송 회장은 앞서 2014년 10월 로터스관(동창회관) 건립기금 1억8백만원, 2016년 11월 동창회관 건립기금 2천만원과 장

학금 등 1억8천4백20만원을 기부해 모교 총 기부금은 2억8천4백20만원으로 늘어났다. 회관건립기금 전달식에는 박대신 총동창회장, 전영화 전 동창회장, 강병국(농경64, 전 화성시의원) 지도위원이 자리를 함께 했다.

심우장 '3.1운동' 100주년 행사



▲ 만해 한용운 선사의 심우장에 대형 태극기가 내걸리고 만세삼창의 함성이 그날처럼 울려 퍼졌다.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지난 3월 1일, 만해 한용운 선사가 만년을 보내고 열반에 든 심우장(尋牛莊, 서울 성북구 성북로29길 24)에 대형 태극기가 내걸리고 만세삼창의 함성이 그날처럼 힘차게 울려 퍼졌다.

본회가 후원하고 만해사상실천연합과 한국불교문인협회가 주최한 이날 '3.1운동 100주년 심우장 기념행사'에는 본회 초대 회장인 만해 한용운 선배를 기리기 위해 전영화 총동창회장을 비롯 박대신 수석부회장, 김오현 상임부회장, 정환민 사무총장 등 사부대중 2백여명이 참석했다.

한국불교문인협회 선진규 회장(불교55),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스님(불교63), 조계종 원로의원 법타스님(인철67), 조계종 전 포교원장 해종스님(불교69) 등의 불교계 원로 동문들도 다수 동참해 자리를 빛냈다.

1부 행사는 이재형(불교64) 행사대회장 인사, 홍파스님의 기미독립선언서 공약삼장 낭독, 축사 및 만해 스님의 시 낭송과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되었다. 2부

에서는 '3.1독립운동과 만해의 역할'을 주제로 동국대 김광식 교수의 강연이 이어졌다.

한편 만해(萬海) 한용운(1879~1944) 선사가 1933년 성북구 성북동에 지어 11년간 거주한 집인 심우장(尋牛莊)은 4월8일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550호로 공식 지정됐다.

동국청우상 윤천영 동문

최재구회장추모사업회 총회

청우 최재구회장추모사업회(회장 류주형) 임시총회가 5월14일 오전 총동창회 회의실에서 열려 향후 기금 운영방안과 제12회 동국청우상 시상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제8~11대 총동창회장을 지낸 최재구 회장의 유훈을 기리는 뜻에서 남아있는 기금을 동창회관 건립기금으로 출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제12회 동국청우상 수상자로 윤천영(농학59, 前 전국농업기술자협회장)동문을 선정하고 금명간 시상하기로 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제5회 리멤버 등산대회 ... 남산에서 꽃핀 우애



▲ 벚꽃이 활짝 핀 모교 교정에서 79 ~ 88학번 동문들이 반갑게 만나 '동국 사랑'을 재확인 했다.

모교 캠퍼스와 남산에 벚꽃이 활짝 핀 4월27일(토) 오전 10시- 반가운 포옹과 악수, 웃음꽃, 다양한 옷차림, 활기넘치는 중년의 동국인들이 대운동장으로 모여 들었다. 입학30주년 홈커밍데이 행사를 치렀던 79학년부터 88학번까지의 '제5회 입학30주년 Remember 등산대회'가 83학번동기회(회장 김창호) 주관으로 10개 학번 2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대운동장과 남산일대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꽃보다 아름다운 우애가 만개했다. 행사 개최 이래 역대 최대 참여 인원도 갱신했다. (2018년 약 200여명)

윤성이 총장은” 소중한 시간을 할애하여 이 자리에 참석한 동문들이 모교 발전의 원동력이다. 동문들의 모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만이 동국의 발전을 확신할 수 있다. 오늘 하루 모교 교정과 남산에서 동문간 화합하고 우애를 다지는 좋은 날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30만 동문을 대표하여 참석한 박대신 총동창회장은 “입학 30주년 기념 Remember 등산대회는 총동창회가 공

식적으로 후원하고 있는 행사이며 매회를 거듭할수록 대표적인 동문행사로 자리 잡고 있다. 동문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을 때 우리 모교와 총동창회가 더욱 발전 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대운동장을 출발, 상록원에서 남산 산책로로 이어지는 길을 따라 석호정, 국립극장, 팔각정(남산타워)을 지나 다시 상록원으로 돌아와 상록원 식당에서의 점심식사에 이어 대운동장에서 레크레이션 행사를 진행했다. 다채로운 게임 뒤 열린 학번별 족구대회에서 우승은 82학번 A팀, 준우승은 85학번 팀이 차지했다.

이날 행사는 많은 동문들의 협찬으로 마련된 경품 추첨 이벤트를 마치고 동문 모두가 한 목소리로 응원가를 열창하며 대미를 장식했다.

‘입학30주년 Remember 등산대회’는 매년 4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개최하며, 내년 제6회 대회는 84학번동문회 주최로 2020년 4월25일(토)에 열릴 예정이다.

ROTC 임관 · 승급 · 입단식 거행

故 김범수 대위 15주기 추모식도



▲ 만해동산에 세워진 故 김범수 대위 흉상.

98, 40기) 대위 추모비 앞에서 15주기를 맞아 헌화 및 분향으로 고인의 살신성인 정신을 기렸다.

김 대위는 35사단 신병교육대대 소대장으로 임무수행 중 2004년 2월 18일 수류탄 투척훈련 교장에서 훈련병이 두려움으로 수류탄을 제대로 던지지 못하여 위태로운 상황이 벌어지자, 위험을 무릅쓰고 안전조치를 하던 중 수류탄이 폭발하여 순직했다.

ROTC동문회 남산걷기대회

112학군단 제57기 임관, 58기 승급, 59기 입단 신고식이 3월4일 모교 중강당에서 개최됐다. 행사에는 윤성이 모교 총장을 비롯해 박대신 총동창회 수석부회장, 김문선 ROTC동문회장과 학부모 및 내빈들이 참석, 격려했다.

신고식에 앞서 임관 및 생도들은 만해동산 동우탑 옆에 세워진 故 김범수(경영

112ROTC동문회(회장 김문선) 남산걷기대회가 5월11일 신록이 우거진 남산들레길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는 모교를 출발, 남산 팔각정을 거쳐 모교 만해광장으로 되돌아와 오락과 피로연으로 회원간 끈끈한 우정을 다졌다.



박대신 신임 총동창회장

“현장에 답이 있다.
단위동창회 직접 찾아가
보고 듣겠다”

지난 3월28일 동국대 총동창회 정기총회에서 제28대 회장으로 선출된 박대신(국문학과 69학번) (주)동우 회장은 “총무로 동창회시대를 열면서 조직 강화와 동창회 기금확보를 위해 직접 발로 뛰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4년간 총동창회 분규사태로 동국장학회가 허공에 떠 후배 학생들에게 지원해야 할 장학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 가장 가슴 아팠다”면서 “이제 분규가 일소된 출발선에 섰기 때문에 총동창회와 모교, 재단이 함께 가는 협력 체제를 강화해 모교를 일류대학으로 이끄는 데 기여하고, 동문사회의 결속을 다지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총화단합의 기틀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명망있는 동창회장의 권위보다 현장을 누비는 실무형 회장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했다. 박 회장은 총동창회 상임부회장 수석부회장을 역임해 동창회 사정을 잘 아는 회장으로서 30만 동문사회를 내실있게 이끌 것으로 동문사회는 내다보고 있다. 지난 4월8일 인사동 총동창회 회장실에서 박 신임 회장을 만났다.

– 총동창회장으로 만장일치로 선출된 소감을 말씀 해주십시오.

“올해 개교 113주년을 맞이하는 모교는 한국대학 발전의 선도자로 빛나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있다. 우리 총동창회 또한 출범 101년째로 자부심이 남다르다. 동국의 발전을 견인하는 한 축으로 동창회를 이끌게 되어 영광스럽지만, 한편으로 눈높이가 높아진 동문들의 기대 수준을 얼마나 충족시킬지 어깨가 무겁다.”

지난 3월28일 모교 강당에서 열린 총동창회 정기총회는 총동창회가 어느때보다 안정적이고 평화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여 총동창회 정체성 계승과 발전에 힘을 보태겠다고 박 회장은 힘주어 말했다.

– 앞으로 총동창회를 이끌어갈 복안은?

“그동안 동창회 상임부회장과 수석부회장으로 활동해온 점이 크게 고려된 것 같다. 동창회 살림을 꾸려보았기 때문에 더욱 탄탄한 기반 위에서 발전책을 강구하라는 숙제를 주신 것으로 받아들인다. 아시다시피 동창회의 힘은 동문의 참여 속에서 나온다. 동창회는 조직이 강화되어야 하고, 재정적으로 안정을 이루어야 한다. 나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자세로 지역, 대학 및 대학원, 학과, 학번, 직장, 친목별 단위동창회를 직접 방문하고, 나아가 단위동창회 임원 수련회 등을 계획하고 있다. 한마디로 네트워크 강화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자 한다. 동문들의 자부심을 키우는 조직으로 지혜를 모으겠다.”

– 그동안 수석 부회장직을 수행하면서 동창회의 속속들이를 알고 계실 텐데,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동창회는 30만 동문을 자랑하고 있다. 외형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의 동문들 활약으로 동문들의 자부심이나 위상이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동창회 특성상 참여하는 층위가 다양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젊은 동문들은 가정의 안정이나 직장 일 때문에 마음은 있어도 참여가 쉽지 않은 것 같다. 또 전반적인 경제불황 탓도 없지 않다. 과거 후배들이 보는 동창회는 “선배들만의 동창회가 아니냐”는 시각이 있었다. 그러다가 지난 2009년부터 79학번 입학30주년 홈커밍데이가 시작되면서 이러한 인식은 많이 달라졌다. 동창회를 사람 몸으로 치면 이제 선배들을 중심으로 한 머리부분, 홈커밍데이 학번을 중심으로 한 몸통부분은 갖춰졌는데 후배들이 참여하는 공간인 다리부분이 허약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함께 걸어갈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 총동창회 운영 과정에서 밖에 있었을 때와 안에 들어와 보았을 때의 동문사회는?

“우리 동문사회는 개인적으로 훌륭한 동문들이 많다. 그러나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되듯이,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활동으로 동국을 빛내는 동문들이 ‘동국’의 이름아래 적극 참여하고 보람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말해 분산된 에너지를 한데 모아 동국의 명성을 확장시키도록 노력하자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 모교 총장과 어떤 협조 체제를 강구할 것이며, 모교와의 관계 정립을 어떻게 세워나갈 것입니까?

“우리 모교는 과거보다 엄청 발전했다고 평가하고 싶다. 입학성적, 졸업생 취업률, 교육 인프라 등은 6,70년

대에 비할 바가 아니다. 고교 학급당 3등 이내의 인재들이 입학하고 있다고 한다. 말하자면 우수한 학생이 들어오고 있다. 그런데 졸업할 때 타 명문대학과 비교할 때 성적이 떨어진다는 평가도 있다. 머리가 안좋은 학생이 들어오더라도 훌륭한 인재로 키워 배출하는 것이 대학이 할 일인데, 반대 현상이라면 모교 교수진의 책임이 크다. 인재가 들어왔으면 더욱 뛰어난 인재가 되도록 키워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실력있는 교수진을 대폭 보강하기를 바란다. 이번 학기에 정년퇴임 교수가 80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이런 때 세계적 석학을 모시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엄격한 필터장치없이 들어오는 교수사회는 학생들에게 직접 피해가 간다. 일류대학으로 가는 길은 실력있는 교수진에 달려있다고 감히 말하고 싶다.”

박 회장은 후배들의 실력 향상에 관해서는 양보가 없다. 이처럼 그가 애교심이 강한 것은 특수한 가족사 때문이다. 캠퍼스 커플인데다 딸아이라도 모교 국어교육과 출신이다. 부인 이애중 여사(전 송곡여고 교사)는 국어교육과 69학번이고, 딸 혜상 씨 역시 국어교육과 96학번이다. 부부 동문에 부녀 동문이다. 박 회장은 재학시절 ROTC 명예위원장을 지냈으며, 총동창회 수석부회장 재임시절부터 재단법인 동국장학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 때문인지 그는 모교 사랑이 거의 ‘이데올로기화’되어 있다. ‘동국이 바로 그 자신’이라고 스스로 평가할 정도. 모교 사랑에 관해 그의 말을 좀더 옮기기로 한다.

“매년 주요 일간지에서 대학 평가순위를 내놓는데 순위가 뒤처지면 속이 상한다. 모교는 이번 신학기부터 젊은 윤성이 총장이 취임하면서 “활기찬 동국”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웠다. 어느때보다 의욕이 넘치고 가능성도 높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모교와 동창회는 상호보완 관계라고 본다. 레일위의 두 바퀴처럼 함께 보조를 맞춰

“내년까지 20억 모금해 장학사업 활성화 방침”

2020년판 ‘동국인명록’ 발행 ... 동문 부부이자 딸도 동문

야 잘 굴러갈 수 있다. 모교와 총동창회간의 거리를 좁힌다는 차원에서 금명간 모교 주요 인사들을 초청하여 격려하는 한편, 동창회에 대한 요구 사항을 듣고자 한다. 총동창회 회칙의 설립 목적에는 모교 발전에 기여한다는 항목이 있다. 물론 금전적으로 장학금을 모금해 전달하고, 학교발전기금을 모아 돕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지만, 그에 앞서 여러 가지 학교 이미지 제고 및 발전 캠페인 등에 적극 참여할 것이다.”

– 총무로 동창회 첫 시대를 여는 회장만큼 기대도 큼니다. 회장 공약을 브랜드화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면?

“지난 3월말 정기총회에서 윤성이 총장께서 총무로 영상센터에 총동창회 사무공간을 배치하겠다고 발표하여 동문들로부터 뜨거운 감사의 박수를 받았다. 동창회관은 동문사회의 초미의 관심사다.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하철 3호선 동대입구역과 지근거리인 현 혜화문 일대에 ‘모터스관’을 짓게 되면 총동창회 공간이 확보된다. 이와 관련하여 2007년 모교와 학교법인, 동창회 3자간에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현재 동창회관 건립기금으로 22억여원을 모교와 공동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다. 500평 공간 확보에 따른 추가 기금 모금도 본격화할 방침이다. 그에 앞서 총무로 영상센터로의 이전은 모교와 동창회간의 긴밀한 협조관계 구축에 있어서 지리적·심리적 거리감을 좁힌다는 의미도 있지만, 상호 신뢰와 배려, 화합이라는 가치를 더 높인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더욱 결속하고 협력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박 회장은 내년까지 20억원의 장학기금을 마련해 장학사업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2020년판 동국인명록을 발행할 계획이다. 동국인명록은 2010년 발행된 것이 현재까지의 회원명부 역할을 해왔다. 그러다 보니 이후 10년간 졸업한 동문(약 6만명)의 명단이나 주소가 업데이트되지 못했다. 회원조직의 관리, 공동체식 고양이라는 관점에서 서둘러야 할 과제라고 했다. 총동창회와 SNS, 단위동창회 등의 협조를 통해 회원 현황을 정확하게, 빠짐없이 파악해 수록할 계획이다. 그는 “동국인명록은 우리 동문 회원들의 빛나는 얼굴이자 거울인 만큼 주변 동문 발굴에 동문들의 협조가 절대적”이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 장학사업에 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다면?

“동창회 장학사업은 모교 발전과 후배들의 면학 정진을 격려하기 위한 핵심사업 중 하나다. 총동창회에서 1970년대 부터 지금까지 장학금 지급 대상 학생은 연인원 2천600여명에 이른다. 1995년부터 장학금의 안정적 지급과 동문들의 참여확대를 위해 동창회 산하에 ‘재단법인 동국장학회’를 설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불행히도 최근 4년간은 총동창회 분규사태로 장학회를 다른 곳에서 가져가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장학회가 정상화되면서 동창회 임원들을 중심으로 장학금이 답지하고 있으며, 뜻있는 동문들이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자동이체한다든지, 지정장학금을 보내오는 등의 다양한 형태로 장학사업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장학사업은 기

부금 처리(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많은 동문 기업인들의 참여를 기대할 수 있다. 이와함께 각급 단위동창회 장학사업도 증가 추세여서 총체적으로 동문장학금은 여타 대학에 뒤지지 않는다고 평가된다.”

– 동창회원들의 참여를 독려할 방안은?

“우리 모교 ‘동국’은 우리 모두의 자화상이다. 우리들의 이력서에 ‘동국’이라는 이름을 지울 수 없다. 요즘 세대에 비추어 ‘학우는 피보다 진하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학연이 가장 큰 스펙이다. 동문들의 자랑이 나의 자랑이고, 나의 자랑이 동문들의 자랑이며, 또한 동국의 자긍심이다. 우리는 ‘같이 있어 가치가 있다’고 하지 않는가? 성공한 동문, 자랑스러운 동문들을 찾아 홍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부심 함양의 동기를 부여하겠다. 앞서도 말했지만 소단위 모임이 결속력이 강하기 때문에 이를 장려하고, 집중화해 나가겠다.”



▲ 모교 발전과 동문사회 결속을 강조하는 박대신 회장 (오른쪽은 인터뷰하는 이계홍 홍보위원장)

– 모교 재학시절의 에피소드가 있다면?

“나는 캠퍼스 커플이다. 아내 이애종씨와 캠퍼스에서 데이트하던 일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나는 재학중 ROTC 명예위원장이었기 때문에 후배들이 내가 사귀는 이애종씨를 만나면 예외없이 경례를 올려붙였다고 한다. 경례를 받을 때 이애종씨는 우쭐했다고 하는데, 그 통에 내가 점수를 많이 댔다. 나는 국문학과이고 이애종씨는 국어교육과여서 함께 수업받는 과목이 있었다. 이때 본 이애종씨는 첫눈에 얼굴이 빛났다. 그래서 절대로 놓쳐선 안된다는 각오를 다졌다. 이애종씨와 결혼식을 올릴 때, 천하를 얻은 기분이었다.”

중후한 키에 신뢰가 가는 성실형의 캐릭터다. 작은 것에 연연하지 않는 대범하면서도 자상한 권위로 리더십을 발휘하는 품성을 지녔다. 친구들로부터 가슴이 넓고 포용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회사도 내실을 다진 가운데 탄탄하게 운영하고 있어 모범기업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서서울청년회의소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재단법인 동국장학회 이사를 맡고 있다.

– 모교 학교법인에게 한 말씀 주신다면?

“동문들이 학교법인에 거는 기대는 자못 크다. 동국의 거버넌스이기 때문이다. 모교가 더 발전해줄길 바라는 뜻에서 요구사항도 많다. 하지만 외부에 비쳐지는 법인

의 모습은 그 구성이 폐쇄적이고 비전문가들로 비춰지고 있다는 점이다. 거기에는 동창회 대표가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개방이사 자리 배려마저 인색하다. 대학발전을 위해서는 학교, 법인, 동창회 3자가 함께 호흡을 맞춰야한다는 데는 모두가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막상 그 틀을 만드는 데는 엇박자가 있어 보인다. 4차원시대, 5G시대에 걸맞게 건학이념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진을 과감히 개방하고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해야한다. 요즘처럼 대학경쟁이 치열한 시기에는 그런 전문가 집단의 참여가 중요하고, 과감한 투자 또한 필수적이다. 동국대학교의 사회적 위상이 올라가면 한국 불교도 이미지가 상승한다. 얼마전 불교계 신문에서 종립학교 승려이사는 학교발전기금을 1억이상 출연하도록 했다는 기사를 보고 반긴 적이 있다. 개방이사도 전문성은 기본이고, 승려이사 이상으로 학교발전기금을 전제로 해야 함을 지적하고 싶다. 동창회를 대표할 수 있는 인사의 참여를 통해 학교·법인·동창회 3자 정립의 체제를 구축해 일류대학으로 키워나가야 한다.”

– 동문사회에 바라는 점은?

“동창회는 선후배관계가 명확하다. 선배는 후배들을 사랑하고, 후배들은 선배를 존경하는 문화 창출이 중요 가치중의 하나다. 이러한 동창회 모습의 시작은 선배 후배 모두의 참여속에 가능하다. 그리고 능동적인 주인의식 속에서 자부심을 키워나가야 한다. 자부심은 더불어 만들어가는 것이지 그냥 얻어지지 않는다. 존 F 케네디 미국대통령이 “조국이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묻지 말고, 여러분이 조국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 동문들도 스스로 참여하는 자세로 무장했으면 한다. 나는 동문 여러분의 증지를 모으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

– 모교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후배들은 우리 동창회 미래의 얼굴이다. 선배들의 면면을 보면 만해 한용운 선사를 비롯 4.19혁명의 선봉, 문학의 ‘태백산맥’, 기업인과 경찰, 연예계, 정치, 법조인, 교육 등 각 분야에서 걸출한 인물들이 배출되었다. 후배들은 ‘동국’을 선택했다는 데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 선배들을 뛰어넘는 역량을 길러주길 주문하고자 한다. 총동창회는 여러분의 든든한 응원자로 역할을 다할 것이니 큰 꿈을 품고 학문에 정진하기를 바란다.”

박 회장의 좌우명은 평범하지만 지키기가 어렵다는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자”이다. 금강경의 한 구절인 ‘應無所主而生其心’(응당 머물 곳 없이 하여 그 마음을 일으키게 하라. 즉 어느 곳에도 마음을 머물지 않게 하여 마음을 일으키라)과 상통하고 있다.

가족은 앞서 지적했듯이 동문 부인 이애종 여사와 역시 동문인 장녀 혜상, 차녀 상희 씨를 두고 있다.

이계홍

(국문65, 前 서울신문 편집국장 직무대행)



‘동국사랑’ ‘후배사랑’ 동국장학금 기부 안내

1995년 2월 21일 설립된 동국장학회는 모교 재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입니다.

매학기 후배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인재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국의 미래이자 동국발전의 초석인 우리 후배들에게 동국인의 자부심을 전해주세요.

동국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보내주신 선배들의 따뜻한 마음을 사랑하는 후배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선배들이 주는 장학금은 후배들의 꿈에 날개가 됩니다.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정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드리오니, 동국가족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국민은행 501601-01-141914 (예금주 : 재단법인동국장학회)

문의 02-733-0303

www.dongguk.or.kr

휴식과 힐링을 위한 가족호텔 동국대학교 만해마을



일반인을 위한 가족호텔, 각급기관 단체, 기업연수 세미나실/강당/식당운영(문인의집)
 청소년수련활동, 대학생 MT, 대단위 기업연수, 세미나실 / 강당 / 대형식당(설악관.금강관)
 예약문의 : 033-462-2303 (만해마을 프린트) / 주소 : 강원도 인제군 북면 만해로 91

※동문 기준요금 40%특별할인

본회 고문단 추대 ... 유임 41명 · 신규 12명

본회 발전에 경륜과 지혜를 가지고 자문역할을 하게 될 고문단이 5월16일 상임위원회 추천을 거쳐 54명이 추대됐다.

이번 고문단 54명중 39명은 유임, 15명은 신규로 모였다. 신규 고문은 사회적

존경과 동문사회의 귀감이 되는 원로들로 평소 동창회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고 계신 분들로 추천되었다.

신규 고문은 △인중식(경제53) △이상윤(정치55) △이상현(경제55) △김재경

(경제57) △라동영(불교59) △전운덕(경제59) △김행남(정치61) △홍영춘(불교61) △문효치(국문62) △김진문(경영64) △조은구(경제64) △조창현(경영64) △최상철(경영64) △윤성이(농경83) △이

기흥(불대원12) 동문 등이다.

박대신 회장은 “101년의 동창회 역사, 30만 동문의 자원을 자랑하는 우리 동창회에서 고문으로 추대하실 분이 많은데 더 모시지 못해 아쉽다”고 밝혔다.



정재철 (정치49)
前 국회의원



권노갑 (경제49)
前 국회의원



황명수 (정치49)
前 국회의원



이태영 (사학51)
한국국제역사교과서연구소장



이민휘 (정치52)
Train Works 회장



류주형 (농학53)
인성개발(주) 회장



인중식 (경제53)
(주)에스엠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전순표 (농학53)
(주)세스코 회장



이석용 (정치54)
前 대한손해보험협회장



이상운 (정치55)
(주)삼영기업 회장



선진균 (불교55)
(사)봉화산 정토원장



윤형두 (법학55)
(주)범우사 회장



이상현 (경제55)
상경물산(주) 회장



김희형 (정치56)
(사)해외한민족연구소 감사



박종운 (경제56)
(주)세창 회장



정상영 (법학56)
KCC 명예회장



형중호 (법학56)
삼공기어공업(주) 회장



김재경 (경제57)
(주)동보 대표이사



박준형 (경제57)
신라교역(주) 회장



심경모 (영문57)
서정연구소 대표



최형우 (정치57)
前 국회의원



김성애 (정치58)
경주중앙청과(주) 회장



김종규 (경제58)
삼성출판박물관장



송석구 (철학58)
前 모교 총장



홍치우 (물리58)
모교 명예교수



라동영 (불교59)
4.19혁명동지회 회장



원용선 (영문59)
(주)남양이앤씨 회장



전운덕 (경제59)
前 대한불교천태종 총무원장



조혜원 (경영59)
모교 명예교수



김행남 (정치61)
예비역 육군소장



홍영춘 (불교61)
前 SK에너지 대표이사



백경남 (정치61)
前 여성위원장



신운표 (행정61)
前 한남대학교 총장



문효치 (국문62)
前 한국문인협회 이사장



이창규 (경영62)
DK메디칼솔루션 회장



이황우 (경영63)
모교 명예교수



한우삼 (농학63)
태양금속공업(주) 회장



홍파스님 (불교63)
대한불교 관음종 총무원장



김진문 (경영64)
신성약품(주) 대표이사



조은구 (경제64)
(주)동양에스텍 대표이사



조창현 (경영64)
국방부 군사연구위원



최상철 (경영64)
파인글로벌(주) 대표이사



명성님 (불교64)
청도문사 회주



서영준 (법학64)
(주)동양 회장



송석한 (농경64)
동진기업(주) 회장



월탄스님 (불교64)
법주사 회주



자광스님 (인철64)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장



현해스님 (불교64)
월정사 회주



김혁 (법학68)
헌법적가치연구원장



보광스님 (불교71)
前 모교 총장



일면스님 (승가75)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윤성이 (농경83)
모교 총장



이기흥 (불대원12)
대한체육회 회장



수불스님 (대학원)
안국선원장



- 동국대학교 의무부총장겸의료원장 조 성 민
- 동국대학교 의료원 기획처장 권 범 선
-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장 이 해 원
- 동국대학교 일산한방병원장 김 동 일
-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장 나 득 영
- 동국대학교 경주한의원장 황 민 섭
- 동국대학교 분당한방병원장 박 성 식
- 동국대학교 의과대학장 이 동 석
-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장 박 원 환

건강한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동국대학교의료원

동국대학교의료원은 진단에서 치료까지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문 진료비 감면 혜택
입원, 외래, 종합검진 10%

동국대학교일산병원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
대표전화 1577, 7000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동국로 27

동국대학교경주병원
동국대학교경주한의원
대표전화 054, 748, 9300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동대로 87

동국대학교분당한방병원
대표전화 031, 710, 3700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268

동국대학교의과대학
동국대학교의학전문대학원
대표전화 054, 770, 2114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동대로 123

동국대학교한의과대학
대표전화 054, 770, 2114
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동대로 123

SAMSUNG

실제 눈앞에 있는 듯 살아있는 자연색

TV를 넘어 새로운 비전이 되다

QLED 8K QLED 8K의 놀라운 화질을 가까운 매장 또는 삼성닷컴에서 경험해보세요

본회 상임위원 33명 · 비상임위원 15명 위촉

박대신 총동창회장은 본회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제28대 동창회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5월16일 제1차 상임위원회 자리에서 위원 32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상임위원회는 본부동창회의 상임위원과 지역담당 비상임위원으로 나누어 운영한다.

상임위원은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상임위원회에 참석, 본회 운영에 관한 제반 안건을 상정,의결한다. 비상임위원은 지역동창회 활성화를 위해 총동창회와의 협력과 유대강화를 위한 중심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상임위원회 구성은 총 33명중 20명은 27대에 이어 계속 봉사하도록 유임되었으며, 28대동창회에 신규 위촉된 위원은 13명이다.

신규 위원은 △한상인(도시공학69) △김세준(화학71) △이윤훈(정외73) △박상범(경영74) △허창식(영문75) △김인수(농학76) △공영대(화학78) △이명철(경대원79) △임선기(경행79) △임금동(경영81) △박윤석(법학83) △장적스님(선학85) △문선배(경대원17) 동문이다.

한편 각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 위원장은 상임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임

명하고, 위원은 분과위원장이 임원중에서 제청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박 회장은 위촉장을 수여하며 “이번 상임위원회는 평소 애교심과 동창회 발전에 관심이 높은 동문들로 사회적 경륜, 각

분야 전문성, 동창회 뉴리더 세대인 7080학번 등을 염두에 두고 위촉했다”면서 “동국 자긍심 함양의 공동체로서 우리의 봉사와 헌신이 미래동국의 희망을 심는 이정표가 되자”고 당부했다.

상임위원
(상임부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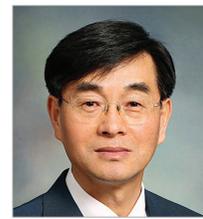
이계홍 (국문65)
前 언론인, 소설가



정환민 (농학65)
본회 사무총장



법타스님 (인철67)
조계종 원로의원

 이경석 (도시공학67) 원색건설(주) 고문	 김한배 (연료공학68) (주)풍년 회장	 한상인 (도시공학69) (주)설미 대표이사	 김세준 (화학71) 제일모피(주) 대표이사	 박태권 (정외71) 前 충남도지사	 오정석 (농학72)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장	 김진익 (경영73) 前 KOTRA 상임감사	 이윤훈 (정외73) 비엔이테크(주) 대표이사
 박상범 (경영74) 모교 경주경영학과 교수	 김상일 (건축75) (주)집현이앤씨 대표이사	 허창식 (영문75) (주)한빛안전기술단 사장	 김인수 (농학76) 에이엠지코리아 대표이사	 김애주 (영문76) 모교 대외협력처장	 김호연 (체교76) (주)아미건 회장	 공영대 (화학78) 모교 화학과 교수	 김문선 (전자79) (주)다물시스텍 대표이사
 최대식 (회계79) K&C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이명철 (경대원79) 경원전문대학원동창회장	 임선기 (경행79) 광운대 겸임교수	 윤미정 (수교81) MJ잉글리쉬 대표이사	 윤재민 (사학81) 종합출판 범우사 대표	 임금동 (경영81) 한세상사 대표	 조총미 (교육81) 에이서유학원 원장	 김종필 (행정82) 내일신문 정치부장
 박윤석 (법학8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장검사	 김태현 (불교84) 법무법인 창조 실장	 장적스님 (선학85) 풍경소리	 차연신 (연영85) 와이에스피엠씨 대표이사	 홍종표 (행대원94) 대원인태내셔널 대표	 문선배 (경대원17) 신화종합건설 대표이사		
 박진호 (경영65) 부산동창회장	 박태현 (경영66) 광주전남동창회장	 안창원 (화학66) 인천동창회장	 장세균 (철학67) 전주전북동창회장	 김사성 (국교69) 청주충북동창회장	 이병국 (농학69) 부산·(주)거림 대표이사	 김종욱 (행정71) 대전충남세종동창회장	
 정중식 (공경76) 부산·성우정공 대표이사	 공석돈 (회계79) 경주·(주)백상개발 대표	 김희배 (공경81) 경남동창회장	 이병선 (사학82) 강원·前 속초시장	 조덕형 (조경84) 경주직할동창회장	 김석만 (사대원89) 사회과학대학원동창회장	 손기범 (행대원91) 대구경북동창회장	 정군석 (경영96) 포항·(주)대영산업 대표

“경무대로 가자!” .. 통국대 없었으면 4.19는 없다

‘동국대학교’ 프래카드 앞세우고 “부정선거 다시하라”

4·19혁명 이끈 방아쇠- 그 공적 과소평가되어 안타까워

찬란한 미래를 향해 “동국대, 앞으로!”

이 땅에서 부정과 부패를 몰아내고, 이 땅에서 무자비한 독재정치를 끝장내기 위해, 분연히 떨쳐 일어나 검은 아스팔트를 붉은 피로 물들였던 4·19민주혁명이 일어난지 어언 59년.

4·19민주혁명의 그 숭고한 정신은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지키는 자랑스러운 구심점이 되어 왔다.

그런데 저 무지막지했던 자유당 독재정권을 이 땅에서 무너뜨리고 이 땅에 참된 민주주의의 기틀을 마련한 4·19혁명을 결정적으로 이끈 동국대의 공적이 너무 과소평가되어 안타깝기 그지없다.

필자는 1960년 4·19당시 <동대신문> 학생기자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데모에 참여했기에 그 날의 울분과 그 날의 분노와 그 날의 함성, 그리고 그 날의 참상을 아직도 낱낱이 기억하고 있다.

3·15 부정선거와 마산 데모진압 사건, 그리고 4·19 하루 전날 일어난 고려대 데모대 피습사건으로 4월19일의 학생 데모가 일어났다.

그러나 4월19일 오전부터 시작된 이날의 학생데모가 처음부터 ‘자유당 정권의 타도’ 나 ‘이승만의 하야’, 그리고 ‘이승만의 추방’을 목표로 삼은 것은 아니었다.

그 당시 데모대의 주된 구호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 악질 경찰 물러가라!
- 정부는 마산사건 책임지고 물러가라!
- 정·부통령 선거를 다시 하라!
- 학원의 자유를 보장하라!

그런데 동국대의 3천 데모대가 을지로 4가를 거쳐 을지로 입구 내무부 앞에 이르러 보니 거기에는 이미 축산대학생으로 기억되는 타 대학 데모대가 연좌 농성을 벌이고 있었다.

이에 동국대 데모대는 내무부 앞에서 경찰 저지선을 거침없이 무너뜨리고 시청 앞으로 돌진했다. 그러나 시청 앞에도 이미 다른 대학 학생들과 고등학생들이 데모를 벌이고 있었으므로 동국대 데모대는 시청 앞에 잠시 머물다가 당시 국회의사당 앞으로 돌진했다. 그런데 국회의사당 앞에도 이미 <서울대학교>의 깃발을 든 데모대가 연좌농성을 하면서 자유당 정권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었

다. 이때 국회의사당 앞,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서울신문 앞 도로 위에는 동국대, 서울대 데모대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청소년, 고등학생들까지 뒤섞여 저마다 구탄 구호를 외치는 통에 그야말로 아수라장을 이루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동국대 데모대 가운데서 누군가가 크게 외쳤다.

“동국대는 경무대로 가자!”

바로 이 한마디가 울려 퍼지자마자 모두들 환호하며 주먹 불끈 쥐고 치켜들었다.

“가자! 경무대로!”
“대통령과 담판하자!”
“우리는 경무대로 간다! 동국대 앞으로!”

<동국대학교>를 알리는 붉은 깃



발이 장대 끝에 매달려 하늘 높이 펴려 있으며 앞장을 서자 동국대 데모대는 성난 파도처럼 경무대를 향해 돌진하기 시작했다.

옛 총독부 건물, 중앙청 광화문 앞 도로 위에는 무장 경찰들이 제1차 방어선인 바리케이트를 치고 동국대 데모대를 향해 최루탄과 붉은 물대포와 공포탄을 무차별 발사했다. 그러나 동국대 데모대 뒤에는 이미 서울대 데모대와 만여명이 넘는 엄청난 민중데모대가 뒤따라와 경찰의 1차 방어선은 여지없이 무너졌다. 이때가 오전 11시13분경이었다.

이어 동국대 데모대는 더욱 기세를 올려 왼쪽으로 기수를 돌려 해무청 앞에 이르렀다. 그러나 해무청 앞에는 제2차 경찰 방어선인 바리케이트가 설치되어 있었고 경찰과 동국대 데모대는 일촉즉발

의 대치 상태를 이루고 있었다. 동국대 데모대는 해무청 앞에서 연좌 데모, 태극기를 높이 들고 애국가를 합창하며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러나 경찰은 계속 최루탄과 물대포를 쏘아 대 데모대 가운데 부상자가 속출하고 여기저기서 데모하던 학생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아스팔트 위에 낭자한 피를 보자 우리 동국대 데모대는 때마침 근처 도로공사장에 널려 있던 돌맹이를 경찰들에게 던지기 시작했다.

최루탄, 물대포, 연막탄의 무차별 사격과 데모대의 투석전이 한동안 격렬하게 전개되는 사이 일부 데모대 가운데 결사대가 멀리 도로를 돌아 통의동 경찰 저지선의 후방까지 돌진했고, 이때 통의동 파출소가 화염에 휩싸였다.

그러자 위기를 느낀 경찰은 경무

무너지고 이승만 독재정부가 이 땅에서 쫓겨나는 <4·19민주혁명>이 될 수 있었다.

그날, 전국 방방곡곡에서 학생데모가 일시에 일어났지만, 내무부 앞이나 시청 앞이나 국회의사당 앞에서 연좌농성이나 하면서 “학원의 자유를 달라”, “마산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라”, “정·부통령 선거를 다시 하라”고 아무리 외쳤더라도, 그것은 그야말로 <대규모 학생 데모>에 그치고 말았을 것이다.

그런데 그때, 국회의사당 앞에서 “경무대로 가자!”고 외친 동국대 데모대의 그 한마디가 결국 저 위대한 <4·19민주혁명>의 방아쇠를 당긴 셈이었고 <동국대학교>의 붉은 깃발을 앞세워 “동국대 앞으로!”를 외치며 경무대를 향해 돌진한 동국대 데모대야말로 <4·19민주혁명>을 달성한 전위대였다.

세종로, 광화문을 뒤로하고 “가자! 경무대로!”를 외친 동국대 데모대.

1차, 2차, 3차 경찰의 바리케이트를 무너뜨리고 경무대를 향해 투석전을 벌이며 목숨을 걸고 통의동, 효자동, 경무대 코앞까지 돌격했던 그 날의 최선봉 동국대 데모대.

그러나 59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동국대 데모대의 그 숭고한 용기와 희생과 공적은 제대로 평가되지 못한채 잊혀져 가고 있으니, 이 얼마나 억울하고 안타까운 일인가!

<4·19>를 평범한 학생데모에서 <4·19민주혁명>으로 이끈 것은 바로 동국대학교 데모대가 외친 그 말 한마디,

“경무대로 가자!”였다.

그날 그 자리에 동국대가 없었고, 그 말 한마디가 없었다면 <4·19혁명>은 없다.

“가자! 경무대로!”

“동국대는 경무대로 간다!”

“동국대, 앞으로!”

그날 외치던 그 절규가 아직도 귀에 생생하거늘, 나의 자랑스런 모교, 동국대여, 우리 다시 돌격하자!



▲ 윤 청 광 (영문59)

(재)한국출판문화진흥재단 이사장 <고승열전> 방송작가

대쪽으로 후퇴하면서 일제히 실탄사격을 퍼붓기 시작했다.

이에 격노한 데모대는 소방차 2대를 빼앗아 후진으로 경무대를 향해 돌진했고, 수 많은 동국대 데모대와 다른 데모 군중들이 효자동에 멈춰있던 빈 전차를 점령, 전차를 뒤에서 밀고 진격, 경무대를 향해 3차 저지선을 뚫고 돌격했다. 그러나 이때 계엄령이 선포됐으니 학생들은 돌아가라고 경찰들이 외치면서 다급해진 경찰들이 데모대를 향해 적군과 전쟁이라도 하는 듯 무차별 총격을 퍼부어 효자동, 통의동 일대는 그야말로 피바다를 이루었고 아비규환의 지옥으로 변하고 말았다.

이렇게 해서, 4·19학생데모는 데모의 수준을 뛰어넘어 처참한 참극을 빚었고 그 참극으로 인해 결국은 자유당정권이



수유리 4.19 국립묘지 기념탑

제59주년 추모식 거행

교정에 '4.19路' 제안

세계4대 혁명 대행진



▲ 모교 동우탑 앞에서 헌화하는 박대신 회장과 4.19 회원들.



▲ 본관에서 학생회관으로 내려가는 4.19 당시 진출로.



▲ 동국대 프라카드를 들고 세종로를 행진하는 동문들.

4.19혁명 제59주년추모식이 4.19혁명동지회와 모교 학생처 주관으로 4.19 회원 및 동창회 임원, 모교 교수·직원, 재학생 간부 등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4월19일 정오 만해동산 동우탑앞에서 거행됐다.

이날 추모식은 이땅의 민주화를 위해 산화한 선배들과 순국선열들을 위한 추모 묵념에 이어 라동영(불교59) 4.19혁명동지회장, 한희원 모교 교무부총장, 박대신 총동창회장, 김종현 총학생회장의 추모사와 헌화 및 분향 순으로 진행됐다.

만해동산에 세워진 동우탑은 4.19가 일어난 해인 1960년 11월25일 학생회에서 건립하였으며, 4.19당시 희생된 노희두(당시 법학과 3년)동문과 6.3 한일회담 비준 반대시위에서 희생된 김종배(당시 농학과 3년)동문을 기리는 비문은 '1966년 4월19일 총학생회' 이름으로 동우탑에 새겼다.

총동창회와 4.19혁명동지회가 4.19혁명 당시 경무대 진출의 선봉에 섰던 본교생들의 정의로운 행동을 영원히 기리기 위해 교정에 '4.19혁명로(가칭)' 지정을 발 벗고 나섰다.

지난 4월8일 박대신 총동창회장이 총장실을 예방한 자리에서 '4.19혁명로'의 필요성을 언급한데 이어, 4월19일 동우탑앞에서 제59주년 추모식을 마친 라동영(불교59) 4.19혁명동지회장 등 임원들도 학교 당국자를 방문해 이를 공식 제안했다.

이에 대해 윤성이 총장은 "깨어 있는 동국정신을 후배들이 기억하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4.19혁명로'가 지정된다면 4.19 당시 명진관(석조관) 앞에서 집회를 마친뒤 교문 밖으로 나가기 위한 유일한 진출로가 되었던 팔정도에서 후문까지를 후보지로 제시했다.

'4.19혁명 세계4대 민주혁명 대행진' 행사가 4월19일 오후 2시부터 서울시청에서 광화문 세종대왕상에 이르는 세종대로에서 열렸다.

이날 동국대 4.19회원 등 1백여명은 붉은색 바탕의 '동국대학교 4.19혁명동지회'와 흰색바탕에 쓴 '학도여! 자유·정의를 위해 총궐기'라는 프라카드를 앞세우며 행진대열의 맨 선두에 서서 4.19 혁명이 세계사적인 위대한 민주혁명임을 천명했다.

행사에는 박대신 총동창회장과 윤성이 모교 총장을 비롯 4.19혁명 주역 등 2천여명이 참가했다.

세계4대민주혁명추진위원회(위원장 유인학, 대학원 86)는 1668년 영국 명예혁명, 1776년 미국독립혁명, 1789년 프랑스 시민혁명과 더불어 1960년 한국 4.19혁명을 세계적인 민주혁명으로 역사에 남기겠다는 목표로 지난해부터 거국적 행사로 개최하고 있다.



▲ 북한산에서 개최된 서울캠퍼스 등산대회.

4.19혁명 기념 등산대회

1970년 부터 시작
민주수호 송고한 뜻 기려
교직원·학생·동문 등 참석



▲ 경주 남산에서 개최된 경주캠퍼스 등산대회.



▲ 4.19탑에 참배하는 윤성이 총장과 4.19 회원 및 재학생.

4.19혁명 제59주년을 기념한 서울캠퍼스 '제50회 동국인 등산대회'가 4월12일 윤성이 총장을 비롯한 교수·직원 및 학생, 동문 등 2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북한산 일대에서 열렸다.

참가자들은 이날 오전 9시50분 4.19민주묘지 내 기념탑에서 추모식을 갖고 고 노희두 동문 등 동국대 출신 4.19혁명 유공자 16명에게 헌화하고 고인들의 넋을 기렸다. 추모식이 끝난 후에는 각 학과와 단체별로 교수 및 학생들이 북한산 대동문까지 함께 걸으며 동국인의 화합과 자긍심을 고취시켰다.

동국인 등산대회는 1970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올해 50회째를 맞이했다. 1960년 4.19혁명의 중심에서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한 동국대 학생들의 송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매년 진행하고 있다.

한편 경주캠퍼스는 4월13일 이대원캠퍼스총장을 비롯 교직원, 학생 3천명이 참가한 가운데 4월13일 경주 남산 일원에서 4.19기념 '제39회 동국인 등산대회'를 개최했다.



Mercedes-Benz

이 재 형

방배전시장
영업4팀/차장

한성자동차주식회사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주) 공식딜러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137 (방배동)

전 화 : 02) 532-3421

직 통 : 02) 3479-8615

팩 스 : 02) 595-0334

휴대폰 : 010-6243-2132

jae-hyoung.lee@hansung.co.kr

www.hansung.co.kr



세계속의 새로운 백년을 준비하는
전통과 저력의 명문사학

| 동국대학교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Dream Of Life
오늘보다 젊고, 아름답고, 행복한 내일을 만드는 침대



대통령 표창 3회 수상
2017 국가품질경영대회 대통령 단체 표창
2015 제품안전의 날 대통령 표창
2014 우수 전기제품 대통령표창

대·한·민·국·대·표·침·대
장수도침대
www.jangsoo.com



| 동국대학교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세계속의 새로운 백년을 준비하는
전통과 저력의 명문사학



ISO 9001 인증

대자기업주식회사

(토공, 비계, 철근·콘, 상·하수도, 금속창호, 포장)

대표이사

조 석 규

(토목 68入)

06753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포로 154, 3층 (양재동, 호성빌딩)

Tel. (02) 579-7651~2 / Fax. (02) 579-7650

E-mail. djcc579@hanmail.net

서울대 등 연파 '5전 5승' 퀴즈아카데미 우승

동대신문 윤청광 · 오익환 · 이창식 기자 3인 '대학가' 흔들다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라 이젠 팩트요 기록이요 레알이다. 서울시내 유명대 등을 차례로 물리치고 4전4승한 중앙대를 꺾은 강팀 서울대 상대를 한판으로 누르고 서울대 의대의 기권을 불렀으며 서울대 문리대를 마지막 5차전 때 역전승으로 깨고 KBS-TV 대학생 퀴즈프로 '퀴즈아카데미' 첫 5전 5승의 우승!

56년 전 1963년 여름을 생각하면 지금도 심장이 쿵쿵 뒹다.

동대신문사 문을 활짝 열고 들어온 최재구 학생과장(후에 국회의원, 총동창회장)이 부리부리한 눈길로 우릴 쳐다보더니 “노그들 갖고 서울대 상대 되겠나!” 열장을 지른다. 마음의 불을 당긴 우리들은 한번 붙어 봅시다. 이래서 윤청광(영문4년, 현 한국출판협회이사장) 오익환(법학2년, 경향신문 논설위원 역임) 이창식(사학2년) 등 3인의 동대신문사 학생기자로 동국대학교 팀을 급조 결성해 1주일 후 KBS-TV 스튜디오로 비장한 각오로 달려갔다. 학교이름을 팀명으로 한 당시 인기프로 '퀴즈 아카데미'의 우리 동국대학교 팀의 센세이션날한 파죽의 연전연승 행진이 시작된 것이다.

퀴즈란게 꼭 실력을 100% 비례 반영하는 건 아니지만 머릿속에 백과사전식의 지식이 내장되어 순발력 있게 남보다 빠르게 정확하게 발표해야 되는 것으로

평소에 내공을 쌓아놔야 한다.

당시 우리나라의 TV는 종각 옆에 있던 RCA-TV가 불타고 1961년에야 KBS-TV 남산입구에서 개국했다. 흑백TV로 보통가정엔 드물었었고, 이웃들이 TV가 있는 집으로 가서 애국가 끝나고 브라운관이 백판 될 때까지 페를 끼치곤 하였다.

이기고 나니 학교 측에서 우릴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고, 특히 많은 동문들의 격려 전화가 쇄도 하였다. 체육관계와는 결이 다른 별다른 응원이었다.

생방송으로 진행된 이 프로에서 6월14일 서울대 상과팀을 7대5로 이겨 서전을 장식한데 이어 2차전에서 덕성여대를 9대0로, 3차전 한양대를 7:2로 첫아웃시키고, 4차전에서 성균관대를 6:1로 완승하니 상대가 없어 프로가 결방되어버렸다. 그 뒤로 서울의대까지 섭외되었다가 기권하는 사태까지 있었다.

“우리가 무서워 다 상대를 안 하는 것인가”라고 생각하며 동국대학교의 천하통일을 목전에 두는듯 했다. 그런데 한 주 쉬고 드디어 상대가 결정되었다는 연락이 왔다. 서울대 문리대팀이라고 한다. 정말 강적이 나타났다. 홍두표 PD(후에 TBC동양방송, KBS사장역임)의 사전 주의사항에 이어 호남아 인상의 김영호 아나운서를 조명이 눈부신 스튜디오에서 만난다. 다섯 번째지만 왜 이리 떨렸는지

모른다. 진행은 막상막하! 1분 30초 남았다는 흥분된 아나멘트 때 상식박사인 오익환도 분전했는데 전광판엔 7:8로 지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문학문제가 출제되고 그 분야의 전문가인 윤청광 선배가 맞춰 버렸다. 스튜디오 안은 그야말로 흥분의 도가니였다. 카메라 옆에선 스폰서가 끊으라는 시늉으로 큐시트를 목에 대고 난리다. 흥 PD의 지시가 왔는지 김영호 아나가 시간은 지났지만 마지막 한 문제로 결판을 내겠다. 팽팽한 긴장 속에 마지막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데 조기에 상대편 서울대 문리대의 벨이 울린다. “아 이쿠 쟤구나” 했는데 “디스레일리” - 김아나운서의 “틀렸습니다” 소리에 전광석화처럼 반사적으로 내 뇌리에 떠오르는 “글래드스톤” - 부자를 누르고 힘차게 외쳤다. “오! 정답입니다” 야구중계 역전만루 홈런을 외치는 소리보다 더 컸던 아나운서의 감격스런 소리를 상기하면 지금도 심쿵해진다.

그 다음 주 그 시간에 전례 없는 좌담회, 시상식, 축하음악회가 방송된다. 또 서울대 음대 실내악단이 출연했다.

지면관계로 상세하게 못썼지만 동대신문사 전화통이 불이 나도록 격려, 환호 전화는 물론 동국대 동문 선배님들의 눈물나도록 고마운 에피소드도 잊을 수 없다. 목요일 저녁 방송국에 갔을 때마다 당시

KBS PD 김재형 선배(후에 용의 눈물등 사극전문 연출)는 카메라 뒤에서 후배들을 살려주었다. 5전 5승후 을지로4가에 있는 당시 유명 불고기 냉면 집 서래관에서 축승파티를 하는데 “동국대 나온게 감격스럽다”며 실컷 먹으라며 불고기 등을 무상으로 무한 리필해주신 이름 모를 선배님께 새삼 감사드린다. 담당 홍두표 PD는 서울대 문리대 출신으로 비교적 공정하게 진행했다. 우승 상패는 학교에 드리고, 우승 장학금으로 1만원을 받았는데 당시 출시된 삼양라면 한 봉지 값이 10원이었으니 꽤 많은 상금이다. 스폰서는 건일약품으로 초창기라 상금 지출에 신경 쓴게 아니었나 싶다. 처음 나가는 현찰 상금이었으니까. 당시 TV방송 초창기라 아직 넉넉지 못한 한국 경제 사정으론 파격적이고 센세이션날한 방송 상금 역사다. 후에 내가 MBC-TV 제작부장으로 동명의 '퀴즈 아카데미'를 CP로서 기획하고 주철환 피디를 통해 인기 성공프로로 자리매김한 것의 동기는 물론 동국대 학생때의 이런 살아있는 기억 때문이다.

이창식 (사학62)

MBC-TV PD 개국멤버, 예능국장, MBC예술단 상무이사 역임. 현 애니작 제작고문



설악산 12선녀탕 등반중 폭우 조난 직감 '아찔'

42년 전 '프로젝트 77' 秘話 ... 재학생 100여명 목숨 지켜내

모교에 대한 추억과 그 속에 담긴 에피소드도 많지만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추억 하나가 늘 가슴속에 남아 있다. 그것은 꽃다운 청춘 후배들의 생명과 관련된 일이어서 더욱 뚜렷하다. 시간을 42년 전으로 거슬러 1977년에 있었던 일이다.

모교 교양학부에서는 1973년부터 1학년 간부학생들의 심신단련과 리더십을 키우는 프로그램으로 '프로젝트 73'을 시작으로 매년 이어져 동국대학교 교양학부의 자랑스러운 주요행사가 되었다.

교양학부가 주관하던 '프로젝트'는 1976년 제4회를 마감하고, '프로젝트 동우회'라는 이름의 씨클이 발족되어 1977년부터는 동우회 주관으로 진행하게 된 것으로 기억된다.

8월초, 프로젝트동우회 백봉흡 지도교수님이 내 직장인 회현동 KOTRA로 급히 오셔서 “이선근 총장께서 학도호국단 사단장을 역임했던 장동락 동문이 '프로젝트 77'에 리더로 참여하는 조건으로 출발 승인을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셔서

학창시절 총장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주시는 뜻을 외면할 수 없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당초 계획보다 며칠 뒤인 8월5일(금) 10시 교정(불상 앞)에서 '프로젝트 77' 학생대표가 총장님께 출발신고를 한 후 여러 대의 버스에 분승, 설악산으로 향했다. 정해진 산행코스는 십이선녀탕 - 대청봉 - 양폭산장 - 비선대 - 설악동 - 낙산휴양소였다.

산행 이튿날 화창한 날씨 속에 일정에 맞추어 이른 시각에 출발, 십이선녀탕 계곡으로 산행하였다. 11시에 100여명이 취사를 할 수 있는 넓은 곳을 만나자 조별로 식사준비를 하도록 했다.

한 시간 가까운 시간이 흘렀을 무렵, 푸른 하늘 아래 맑은 물이 마치 마당 같은 넓적한 바위와 바위 사이로 졸졸 흐르는 물소리들이 어울려 풍기는 정취가 마치 지상낙원과도 같았다. 십이선녀탕 계곡에서 식사준비가 된 조부터 즐겁게 점심 식사를 하는 모습들이 눈에 들어온다. 나

역시 같은 조원들과 식사를 하다가 산 정상 위의 하늘을 바라보는 순간, 공포감이 엄습하였다. 저 먼곳 산 정상에 시커먼 먹구름이 점점 확산되고 있는 것을 본 것이다. 나는 너무 다급함을 느꼈다. 그 시각에 그 누구도 느끼지 못하는 공포를 혼자만 느낀 것이다.

“전달, 전달, 모든 대원들은 지금 식사 하던 동작을 멈추고 장비를 챙겨서 즉시 계곡 오른쪽 산위로 오른다. 실시” 심각한성을 모르는 학생들이라 “밥이나 다 먹고 갑시다” “빨리 올라가지 못해”라고 소리 치면서, 몽둥이를 휘둘러 학생들을 계곡에서 정상에 바라보는 오른쪽의 산기슭으로 모두 올려 보낸 뒤 혹시나 잔류한 대원이 있는지 다시 확인한 후 내가 마지막으로 계곡에서 산기슭으로 발을 올려놓는 순간, 엄청난 양의 물이 빠른 속도로 마당바위 일대를 휩쓸었다. 미처 챙기지 못한 코펠 식기들이 순식간에 눈앞에서 사라졌다.

밥을 마저 먹겠다고 조금만 더 지체하

였다면 그들 모두는 급물살에 밀려 마당바위 밑의 6~7 미터 낭떠러지 급류에 휩쓸렸을 것이다. 이 모든 상황이 5분 정도 안에서 벌어진 것이다.

동국대학교 '프로젝트 77' 팀은 나의 리더로 한 사람의 사고도 없이 모두 양폭산장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었다.

대원 모두가 안전하게 설악산을 횡단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리선근 총장님의 해안과 제자들의 안전을 염려한 배려심이 원동력이 되었고, 그리고 산행하는 동안 안전 대원들이 나를 믿고 리더를 잘 따라 준 결과라 할 것이다.

국가적 재난이 될수도 있는 위기의 순간에 100여명의 인명 피해를 예방한 나의 공로(?)는 세월과 함께 묻혀지는 것인가?

장동락 (정외70)

前 KOTRA 테헤란무역관장

개교 113주년 개교기념식 거행

‘Energize Dongguk 프로젝트’ 비전 선포

모교 개교 113주년 기념식이 5월2일 (목) 오전 본관 중강당에서 거행됐다. 개교기념일은 5월8일이다. 식전행사로는 지난 3월 취임한 윤성이 총장의 재임중 핵심사업이 될 ‘Energize Dongguk’ 비전선포식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에는 학교법인 이사장 자광스님과 법인 임원, 윤성이 총장, 박대신 총동창회장, 송석구·한보광 전임총장, 전순표·전영화 전임 동창회장을 비롯한 동문 및 교수 직원 재학생 등 내외귀빈 400여명이 참석했다.

박대신 총동창회장은 축사에서 “설립 종단과 모교법인, 대학, 동창회가 공동목표를 향해 어느때보다 4위1체가 되어 상호 신뢰하고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상생해야 할 때다”라며 “영원히 존재해야 할 동국, 명문사학으로 영구히 발전해야 할 동국의 희망공동체가”고 강조했다.

개교기념식 행사는 발원문 봉독, 학교 연혁보고, 기념사 등이 있은뒤 ▲근속상 수여 ▲동국학술상/우수연구자상/우수논문상/대학원학술상 수여 ▲공로상 수여 ▲동국사랑 어워드 수여 ▲자랑스러운 동국불자상 수여 ▲자랑스러운 동국가족상 수여 등의 식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모교는 개교 기념식에 앞서 ‘Energize Dongguk’ 비전선포식을 선포하고 활기찬 동국의 새 장을 열었다.

윤성이 총장은 “향후 4년이 우리대학의 미래에 있어서 중대한 시기임을 절감하여 이번 Energize Dongguk 프로젝트를 수립하는데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며 “대내외 환경과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도출된 이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구성원 모두와 함께 소통하며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모교 발전계획 ‘Energize Dongguk 프로젝트’는 ‘공헌으로 존경받는 글로벌 동국’을 비전으로 ▲전후방 견인 ▲다원화 ▲통합·연계 등의 3대 전략을 추진한다.

이에따라 ▲건학이념 ▲교육공헌 ▲연구공헌 ▲산학협력 ▲지속경영의 5개 영역에서 총 28개 과제 64개 사업을 제시, 추진하게 된다.

세무사 배출 전국대학 6위

순위	대학명	계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1	서울시립대	319	31	31	38	35	25	37	36	33	27	26
2	국립세무대학	239	9	7	7	16	26	26	42	36	35	35
3	중앙대	224	22	24	29	18	15	20	26	29	21	20
4	경희대	213	25	19	26	24	26	17	26	16	17	17
5	웅지세무대	201	23	26	32	24	23	12	20	13	13	15
6	동국대	191	14	23	20	21	18	17	23	16	21	18
7	한양대	165	14	18	14	11	18	20	11	23	17	19
8	단국대	157	20	13	14	13	17	22	18	12	10	18
9	고려대	156	13	18	11	18	14	12	18	13	17	22
10	송실대	155	22	19	15	14	19	14	17	16	8	11

모교는 지난 10년간 세무사를 총 191명 배출하며 전국대학 6위를 기록했다.

한국대학신문이 지난 3월4일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우리대학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총 191명의 세무사가 배출해 서울시립대, 중앙대, 경희대 등에 이어 6위를 차지했다.

세무적으로 △2009년 18명 △2010년

21명 △2011년 16명 △2012년 23명 △2013년 17명 △2014년 18명 △2015년 21명 △2016년 20명 △2017년 23명 △2018년 14명 등이다.

이번 발표는 한국대학신문이 한국산업인력공단 데이터를 토대로 대학별 순위를 산출한 자료이며, 대학들의 세무사 배출현황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초중등교원 임용고사 135명 합격

2019학년도 초중등교원 임용고사에서 모교 출신 합격자는 총 135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8년과 2017년에 비해 15~17명 향상된 성과로서 국어, 영어, 수학, 지리, 보건, 중국어 등의 분야에서 고른 두각을 나타냈다.

특히 지리교육과, 가정교육과와 체육교육과에서는 각각 15명, 17명, 20명의 합격자를 배출했으며, 이는 학과 입학정원의 절반 가량이 합격한 셈이다. 응시지

역별 합격인원은 경기 65명, 서울 25명, 강원 10명, 충남 8명 순이었다.

본 자료는 3월12일까지 파악된 자료로 합격자 수는 추가될 수 있다.

△교육학과= 6명 △국어교육과= 9명 △역사교육과= 11명 △지리교육과= 15명 △수학교육과= 9명 △가정교육과= 17명 △체육교육과= 20명 △교육대학원= 5명

‘Energize Dongguk’ 비전 요약

‘공헌으로 존경받는 글로벌 동국’

5개 영역 · 28개 과제 · 64개 사업 추진

불교산업진흥원 설립 융복합 불교 교과목 개발

불교종립대학인 모교는 건학이념 실현을 위해 불교교육의 내실화 강화를 추진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를 반영, 전반적인 수요자 조사를 통해 교육과정을 개편한다. 증가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불교 교과목 개발도 추진할 방침이다. 불교와 IT의 결합 등 융복합 불교 교과목 개발도 눈에 띄는 사업이다.

불교산업진흥원을 설립해 불교기반 사업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불교문화와 관련된 역량과 콘텐츠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화를 추구해 나갈 방침이다. 불교문화재 보수정비 시장의 정부 사업비만 약 1500~1600억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화쟁형 인재 양성 ... 세계 100대 학과 육성

모교가 육성하고자 하는 인재상은 ‘화쟁형 인재’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사회와 산업체가 요구하는 융복합형 인재로, 갈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해결능력까지 갖춘 인재양성을 목표로 한다.

대학 교육 패러다임 변화요구에 따라 교육혁신 전담조직도 설치된다. 화쟁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선도적 학제 모델을 개발하고 학사제도를 유연화 한다는 계획이다. 목표제시형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교육품질과 학생역량 보장체계도 운영한다.

세계 100대 학과 육성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대학의 전체학문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역량과 의지가 있는 학문 단위를 발굴, 자원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세계 수준의 교육/연구 역량을 갖춘 학과를 배출한다는 목표다.

Core Faculty 상시 초빙 ... 글로벌 수준 연구경쟁력 확보

대학의 연구역량을 집결하고, 새로

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연구 토대를 마련할 방침이다. 연구분야를 전담하는 연구부총장을 신설하고 학술연구 및 산학협력 기능을 체계화 할 계획이다.

특히, 우수교원 상시 추천과 관리를 위한 Core faculty 인력 Pool 시스템을 구축한다. 연구실적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 조기 정년보장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창업보육 원스탑 지원체제 ... 글로벌 수준 연구경쟁력 확보

학내 스타트업 육성이 활발한 우리대학은 창업 교육, 창업 진흥, 창업 보육 등 대학 내 창업 관련 기능을 통합해 학생들의 창업을 원스탑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연구부총장 산하 ‘창업원’ 신설하고 산하에 청년기업가센터, 창업진흥센터, 창업보육센터, BMC 창업보육센터를 둔다.

특히 연구부총장 산하 연구처, 산학협력단 등과 연계해 기술 기반 창업 활성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점도 주목된다.

지속가능한 경영체제 구축 ... 기금 모금, 소통 기능 강화

자율책임 경영을 위해 기민한 행정조직을 구축했다. 연구부총장제도 신설, 교육혁신처 신설 이외에도 대학 전체의 데이터를 수집, 분석, 가공해 정책적 의사결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IR팀 (Institutional Research)을 신설했다.

또한 구성원과의 양방향 소통채널 구축을 통한 유대감 및 공감대 형성에 집중해 대학 발전에 모든 구성원의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대학의 재정 확충과 로터스관 등 교육연구시설 건립을 위해 30만 동문과 불교계, 일반 기업체 등을 대상으로도 기부금 유치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다양한 모금 프로그램을 기획 중이다.





올해 정부지원사업 200억원 돌파

각종 중·대형 국고사업 잇달아 수주

모교는 올해 각종 중·대형 국고사업을 수주, 정부지원사업비 200억원을 돌파했다.

4월10일(수) 교육부에서 발표한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2단계 사업에 최종 선정돼 2021년까지 매년 37억 내외(3년간 약 110억원)의 국고를 지원받는다.

4월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이 주관하는 '혁신성장 청년인재 양성사업' 과 한 국데이터산업진흥원 주관의 '빅데이터

청년인재 양성 운영대학' 선정됐다. 사업 총괄책임자는 컴퓨터공학과 주해중교수로 3년 간 국비 24억원을 지원받는다.

5월2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2019 초기창업패키지사업에 선정됐다.

2011년 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에 최초 선정된 이후 8년 연속 창업선도대학에 이름을 올렸다.

또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으로 30억 5천만원을 지원받는다.

로터스관 건립기금 1천만원



홍파스님(불교63, 대한불교관음종 총무원장이 4월3일 낙산묘각사를 찾은 윤성이 총장에게 “로터스관 건립에 작은 보탬이 되고 싶다”며 1천만원을 기부했다.

해광원 건립기금 1천만원



법타스님(인철67, 조계종 원로의원이 3월13일 윤성이 총장에게 모교 비구니기숙사 해광원 건립기금으로 1천만원을 전달했다. 법타스님은 “동국대 정각원장을 역임하던 시절 비구니스님 기숙사인 해광원 재건립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번 기부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동국사랑 1.1.1 캠페인 동참

박대신 총동창회장(국문 69)이 모교에서 벌이고 있는 ‘학생들을 위한 소액 정기기부 운동’ <동국사랑1.1.1캠페인>에 동참했다.

박 회장은 4월8일 윤성이 총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후배들을 위한 기부에 동참하고 싶다”며 동국사랑1.1.1캠페인 정기기부 회원신청서를 전달했다.

동국108리더스 2,400만원

재학생들로 구성된 ‘동국108리더스’ 12기(회장 신명규) 학생들이 3월12일 윤성이 총장을 만나 후배들을 위해 써달라며 ‘108리더스기금’ 2400만 원을 전달했다.

‘동국108리더스’의 이와 같은 훈훈한 나눔은 2013년 6기부터 시작된 전통으로 올해 7회째를 맞는다.

이번 기부를 포함해 ‘108리더스기금’은 총 2억2천여만원에 달한다.

‘고형암 치료제’ 특허기술 이전

공영대 교수팀, 암치료 혁신 신약 개발



공영대 교수

모교는 3월7일 본관 로터스홀에서 (주)엘에스케이엔알디오(이하 LSK NRDO, 대표이사 이영작)와 기술이전 협약식을 갖고 고형암 치료제 후보물질 특허 및 노하우 기술을 이전하기로 했다.

공영대 화학과 교수가 개발한 고형암 치료제 후보물질 ‘DGG-200338’은 고형암을 타겟으로 하는 혁신 신약이다. 기존 항암제와 차별화된 작용기전과 경구용 항암제로의 개발 가능성을 확인해 신약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았다.

이번 항암제 선도물질은 한국연구재단 바이오의료기술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한 연구사업(총괄책임 공영대 교수)을 통해 개발됐다.

세계 최초 치매 치료 기술 개발

김종필 교수팀, 유전자 가위기술 기반



김종필 교수

이과대학 화학과 김종필 교수 연구팀이 최신 유전자 가위로 알려진 CRISPR/Cas9 기반 유전자 가위 나노복합체를 제작해 알츠하이머(치매) 치료에 활용할수 있는 신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3월12일 모교측이 발표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신경생명과과학분야의 최고의 권위가 있는 학술지인 네이처 뉴로사이언스(Nature Neuroscience, IF=19.912, Neurosciences 분야 1위, 상위 0.58% 이내)에 11일(영국런던시간) 자에 게재됐다.

이전 연구 결과는 신경생명과과학분야의 최고의 권위가 있는 학술지인 네이처 뉴로사이언스(Nature Neuroscience, IF=19.912, Neurosciences 분야 1위, 상위 0.58% 이내)에 11일(영국런던시간) 자에 게재됐다.

‘소통·공감 홈페이지’ 오픈

모교에 구성원 의견수렴과 정책제안 채널 소통·공감 홈페이지가 신설됐다. (<https://sotong.dongguk.edu/main>)

모교는 지난 5월2일(목) 발전계획 ‘Energize Dongguk’ 프로젝트 선포와 함께 소통·공감 홈페이지를 오픈했다. 소통·공감 홈페이지는 구성원들의 학교

발전 위한 건설적 제안을 공유하고,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소통 채널로 마련됐다.

소통공감 홈페이지에는 ▲동국의 비전 ▲동국 리서치 ▲동국의 변화 등의 코너도 마련되어 있다.

경주 ‘형산강 연등문화축제’



모교 경주캠퍼스와 경주 불국사 공동 개최한 ‘2019 형산강 연등문화축제’가 5월3일 화려한 점등식으로 막을 올려 4일 토요일까지 유등 및 장엄등 전시, 제등행렬, 다양한 체험, 페스티벌, 형산강 소원 유등 띄우기 등으로 시민 모두가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을 펼쳤다.

이번 축제는 형산강 수상장엄등, 장엄등과 금강대 옆 강변에 400여 미터에 걸

쳐 조성한 형산강 연등숲에 1500개의 연등을 밝혀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경주의 새로운 야경을 선사했다.

이대원 경주캠퍼스총장은 “신라 천년의 빛이 금강대와 형산강을 환하게 밝힌 형산강연등문화축제가 경주의 새로운 야간관광문화자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전주비전대학교 총장 홍순직 동문



홍순직(경영66)동문이 전주비전대학교 제15대 총장으로4월5일 부임했다.

2011년에 13대 총장으로 재직한 바 있다. 당시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해 문단을 위기에 처해 있던 대학을 불과 2년여만에 기업맞춤형 교육으로 전국100위권에서 10위권 취업 명문대학 반열에 올려놓아 화제가 되기도 했다.

산업자원부에서 20년동안 부이사

관으로 재직후 1995년 삼성경제연구소 전무, 삼성자동차(주) 전무, 삼성SDI(주) 부사장 겸 삼성미래전략위원회 부사장을 역임하고 한국생산성본부회장을 지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모교 미래기획위원장을 맡아 장단기 마스터플랜 작업에 기여했다. 특히 2006년 10월 모교 객원교수로 회계원리를 강의하며 회계사시험을 목표로 한 스터디그룹 '홀인원'을 탄생시켜 많은 후배들이 합격할 수 있는 주춧돌을 놓았다.

동그라미 '창립50주년 사진전'



동그라미사진연구회(이하 '연구회')가 창립 50주년을 기념하여 5월5일~11일까지 모교 동국갤러리에서 사진전을 개최한 데 이어, 15~20일까지는 서울 동송동 홍대아트센터에서 회원 사진전을 열었다. 재학생과 졸업생 총 108명이 총 160여 점의 사진을 출품했다.

1969년 동대신문사 내의 '동대사진클럽'을 모태로 탄생해 1976년에

'동그라미 사진전'이라는 타이틀로 첫 정식 사진전을 개최한 이래 재학생 회원들은 매년 정기 사진전, 신인 사진전, 축제 사진전을 열어왔다. 이후 졸업생 회원들은 매 10년마다 창립전을 개최해왔다.

1980년대에는 대학미전에서 많은 수상작을 냈고, 졸업생 중에는 다수의 회원들이 주요 언론사의 사진기자, 촬영기자, 사진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50년간 입회원은 2000명이 넘으며, 현재 졸업생 200여명과 재학생 50여명이 활동하고 있다.

취 임 · 영 전

대한노인회중앙회 부회장



김완식(농학64) 동문이 4월15일 대한노인회 중앙회 부회장으로 선출됐다.

새마을운동 고성군지회장, 고성군산림조합장, 전국농업기술자협회 도연합회장, 노인회 고성군지회장 등을 역임했다.

순천농협 조합장



강성채(농학73)동문이 3월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순천농협 조합장에 단독 출마, 무투표 당선됐다.

농협중앙회 신유통기획단장, 농협유통청과사업본부장, 순천농협 조합장(통합제4대), (주)고흥군유통 대표를 역임했다.

무궁화신탁 신탁사업부문 사장



권준명(임학78)동문이 3월28일 부동산신탁업계 '다크호스'로 부상하고 있는 무궁화신탁 신탁사업부문 사장으로 임명했다.

한국감정원을 거쳐 국내 최초 부동산 신탁업체인 한국부동산신탁에서 신탁업무 경험을 쌓았다.

2009년 무궁화신탁 창립 멤버로 참여해 성장을 이끄는 등 부동산신탁업계 전문가로 통한다.

강원 인제군 번영회장



남평우(농생78) 동문이 4월27일 인제군번영회장에 취임했다.

인제JC특우회장, 인제경제를 생각하는 모임 회장, 인제군 평통자문위원, 인제군재향군인회장으로 활동했으며, 제9대 도의원 시절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장을 역임했다.

안양예술고 제8대 교장



황영남(국어교육80) 동문이 국내 최고 예술인재 양성 교육기관인 안양예술고등학교 제8대 교장으로 3월4일 취임했다.

삼량중·고, 서울 세종고, 영훈고 교장을 역임했으며 국가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 교과부 대학입학사정관제 정책위원, 국무총리실 교육개혁협의회 민간위원, 대통령실 교육정책자문위원회 위원,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전문위원 등 주요 요직을 거쳤다.

국립제주박물관장



김유식(국사81)동문이 3월4일 국립제주박물관장으로 영전했다.

국립부여박물관·국립경주박물관 학예연구실장,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 팀장, 국립경주박물관·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관 등을 역임했다.

한국체육대 총장



안용규(대학원석사 체육82)동문이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임명을 받아 제7대 한국체육대학교 총장으로 3월 22일 업무를 시작했다.

2005 마드리드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 한국대표팀 감독을 지냈으며, 2000 시드니 올림픽부터 2012 런던 올림픽까지 4회 연속 MBC방송의 해설위원을 맡았다.

농어촌공사 전북지역 본부장



이강환(행정83) 동문이 한국농어촌공사 제15대 전북지역본부장으로 취임했다.

1987년 한국농어촌공사에 입사한 뒤 고창지사장, 본사 인사복지처장, 경영지원처장, 제주지역본부장을 역임하는 등 공사 내 요직을 두루 거쳤다.

여자프로농구 신한은행 감독



정상일(경제87) 동문이 4월3일 여자프로농구 인천 신한은행 감독으로 부임했다.

기아자동차에서 선수 생활을 한 정 동문은 프로농구 울산 현대모비스와 여자프로농구 용인 삼성생명 코치 등을 거치며 경험을 쌓았다. 2018~2019시즌 OK저축은행을 지휘하며 지도력을 인정 받았다.

한국애브비 전무



박명철(화학92) 동문이 4월25일 글로벌 바이오 제약 기업인 한국애브비 HCV 및 스펙셜티 사업부 전무로 자리를 옮겼다.

안센 코리아에서 영업과 마케팅, 한국베링거인겔하임에서 마케팅, 한국페링제약에서 마케팅과 마켓 액세스 업무를 총괄했다.

서울시 소기업소상공인회장



최병순(국제통상04, 건우종합건설 회장)동문이 5월15일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신임 회장으로 취임했다.

금천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 기초의회의장단협의회 부회장, 금천남부새마을금고 이사장, 민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수 상

제55회 한국문학상 수상



신상성(국문63, 용인대 명예교수)동문이 지난해 연말 소설집 '목불'로 제55회 한국문학상을 수상했다.

1979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소설 '회귀선' 당선으로 문단에 데뷔, 다수의 소설집, 평론집, 수필집, 시집을 펴냈다.

'대한민국 산업대상' 수상



오정석(농학72,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장)동문이 4월25일 열린 '2019 대한민국 산업대상' (지속가능 부문)을 수상했다.

2017년 환경부 장관이 수여하는 자원순환분야 표창에 이어 2018년에 TV조선 상생경영상, 동아일보 동반성장대상을 받았다.

전 시

황규태 개인전 'PIXEL'



황규태(정치57) 동문이 개인전 'Pixel'이 3월7일부터 4월21일까지 아라리오갤러리 서울 1삼청에서 열렸다.

경향신문사 사진기자를 거치며 본격적으로 사진작가의 길로 들어섰다. 50년대 말부터 독자적으로 사진을 연구하고 사진가로 활동하던 그는 1963년 'US 카메라 콘테스트' 수상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동강사진상(2018)을 수상했다.

기 타

故 김종배 열사 추모식



1965년 굴욕적인 한일협정에 반대하다 산화한 故 김종배 열사 추모식이 4월 15일 오전 11시 김종배 열사 흉상이 위치한 만해광장 동우탑 앞에서 열렸다.

이날 유가족 및 종학생회 집행부, 권오갑(62농경) 동문 등 20여명이 참석해 고인의 넋을 기렸다.

본회 주최, 월제 혜담스님 ‘大 고려불화전’

5미터 수월관음도 · 루브르 초청작 등 60점 공개

서구의 르네상스보다 200년이나 앞서 꽃피운 중세 종교미술의 최고봉 고려불화가 월제혜담 스님(불원91, 계태사 주지, 본회 부회장)의 손끝을 거쳐 대중들에게 선보였다.

본회가 주최하고 (사)계태사고려불화학술연구소가 주관한 ‘월제혜담 스님 대 고려불화전-천년, 고려의 혼을 깨우다’ 전시회가 3월6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세종문화회관 미술관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서울시와 문화재청 등이 후원했다. 이번 전시에는 혜담 스님의 대표작 60여 점이 공개된다. 5미터 규모의 수월관세음보살도를 비롯해 프랑스 루브르박물관 초청 전시 작품들과 11면 관음도, 양류관음도 등 고려불화 계승자 혜담 스님이 직접 그린 수작들이다.

고려불화는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민족문화유산의 정수로 화려함과 정교함에 있어 세계 미술사에서도 그 가



▲ 대 고려불화전 테이프 커팅하는 혜담스님(왼쪽에서 세번째)

치를 높게 인정받고 있다. 고려불화는 고려 말기인 1270년부터 약 120년간에 걸쳐 집중 제작됐는데 이 시기는 몽골의 침략으로 고려조정이 강화도로 피신해 있던 시기와 겹친다. 고려불화가 위기에 처한 국운을 살리

는 호국불화라고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혜담 스님은 출가 후 40여년을 고려불화의 복원과 보존, 전승에 매진했다. 외형만 따라 그리는 모방화가 아니라 고려불화의 채색기법과 안료를 그대로 복원해 1000년 전과 똑같은 과정을 통해 작품을 제작하고 있다. 이런 점이 인정돼 프랑스 루브르박물관은 수년전부터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로 혜담 스님을 초청해 전 세계에서 모인 각국의 대표작들과 함께 전시하고 있다.

이날 개관식에는 본회에서 전영화 회장을 비롯 박대신 수석부회장, 정환민 사무총장, 신관호 사무국장, 이상호 부장이 참석해 자축했다. 내외귀빈으로는 설정 전 조계종 총무원장, 이주영 국회 부의장, 주호영 국회의원, 문황진 MAX해인산업 회장, 불교대학원 동창회장 지을스님, 선상신 불교방송 사장, 전무송 연예인을 비롯 300여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무일선교법장



우학스님 / 좋은 인연

우학스님(선학84, 한국불교대학 대 관음사 회주)이 두 번째 1000일 정진 회향과 불기 2563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그동안의 전법활동을 갈무리한 ‘무일선교법장(無一禪教法藏)’을 펴냈다.

그동안 출판된 300여 권에 달하는 우학 스님 저서와 수많은 법문, 강의록 등의 핵심 내용이 총망라됐다. 특히 스님의 수행과 기도를 통해 정리해온 사상 등을 총체적으로 담아내 우학 스님의 전법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즉 스님의 저서, 설법, 강연에서 길어 올린 불자답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담은 책이다.

책은 크게 ‘특별론’과 ‘일반론’으로 구성됐다. 특별론은 우학 스님의 사상을 중심으로 담았고, 일반론은 법문과 저서에서 발췌한 내용을 보시·지계·인욕·정진·선정·반야·방편·원·역·지·포교의 11바라밀로 세분화해 수록했다.

‘푸른 밤 붉은 수레’



강경호 지음 / 푸른사상

강경호(국문03) 동문이 장편소설 ‘푸른 밤 붉은 수레’를 펴냈다.

이 장편소설은 우리에게 선의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제공하는 작품이다. 이 작품을 마주하면 몽상과 꿈과 희망이 교차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작가는 “이 소설은 선의를 지닌 한 소년의 인생 유전을 그렸고 “대조적으로 소년이 중요하고 복수를 다짐한 한 대상의 악의 행적도 이 요소”라며 “이 선악의 충돌은 우리의 세상에 보편적 현상일 수 있으니 소년에게 이어서 목숨을 걸 만큼 남다른 사연이 있어서 그 사연을 소설로 엮었다”고 피력했다.

장편소설로 “그날 이전(1984)” “에틸바이스(1988)” “천상의 묵시록(1997/전 2권)” “포세이돈의 후예들(1988)” 등이 있고, 소설집으로 “조문사에서 7일(2014)”이 있다.

성철 큰스님을 그리다



유철주 지음 / 장경각

유철주(사학97)동문이 성철 스님의 직계 상좌를 지낸 스님 16명과 재가제자 20명의 인터뷰한 것을 책으로 엮었다.

현대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선승이었던 성철(1912~1993) 스님은 ‘호랑이 같은’ 모습으로 대중들의 뇌리에 각인되어 있다. 제자들에게 단 한 순간의 게으름도 허락하지 않았고 고관대작들도 3000배를 해야만 만나졌다.

‘성철 큰 스님을 그리다’는 선(禪) 전문잡지 ‘고경’ 2013년 5월호부터 2015년 12월호까지에 실린 스님과 불자들의 인터뷰를 수정 보완하고, 연재 중에는 만나지 못했던 제자들의 회고를 추가해 만들었다. 특히 그간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성철 스님의 만상좌 천제 스님과 두번째 상좌 만수 스님이 경남 통영 천제굴과 경북 팔공산 성전암에서 성철 스님을 모신 이야기를 전한다.

모두의 정성을 모으면 동국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회비는 1년에 한번 ... 소중한 정성을 모아주세요.

총동창회비는 회원간 우의증진, 후배 장학금, 동창회보 발간 등을 위한 소중한 재원입니다.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나 말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 작은 꽃이 모이면 훌륭한 꽃밭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동국발전의 큰 길에 아름다운 동행이 되어주십시오

● 임원회비 및 동창회비

- 고문 100만원 이상
- 부회장 100만원
- 지도위원 30만원
- 상임이사 20만원
- 이사 10만원
- 년회비 3만원

● 납부방법

(예금주 : 동국대학교 총동창회)

- 송금계좌 : 국민은행 006001-04-237869
- 우리은행 1005-302-718184
- 지로납부 : 7500891 (우편물 발송시 동봉함)

※ 주소와 연락처가 변경된 동문께서는 총동창회 사무처 전화 02-733-0303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NH NongHyup

중요로운 농촌, 행복한 삶의 동반자

순천농협

앱 설치 안내



[순천농협]검색 후 설치

소통의 공간!!
스마트사랑방

마켓이
내 눈앞에...!!
스마트
파머스 마켓

행복한 농업인!

농업인 권익증진과
농가소득 5천만원
시대를 열고

행복한 고객!

최고의 가치실현과
스마트한 금융
시대를 이끌며

행복의 동반자!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
발전하는 순천시민의
든든한 동반자

신선한
농산물이 가득!!
모바일
빅거래 장터

스마트한 순천농협



전남 순천시 백연길 111(조례동 70-2) / Tel. 743-3583 <http://farmerbank.nonghyup.com>



“ 불교의 미래는 청년에게 있습니다.
원법사장학회는 청년들의 비전과 열정을 응원합니다.

원법사장학회라는 나무에 햇볕과 거름이 되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손길을 기다립니다.

원법사장학회이사장 주지 해운

원법사는 2009년부터 경제적으로 소외된 이웃의 초등학교 중등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2015년 1월 '원법사장학회'를 설립하여, 지금까지 초, 중, 고 대학(원)생 271명에게 장학금 1억5천660만원을 지급 하였습니다.



행복도량 원법사

포항시 북구 신광면 호리길 65번길 9. (054)-244-0108

후원계좌

농협 355-0034-7103-53, 원법사장학회

나를 바라 보는 또 다른 세상



낙산묘각사 템플스테이
주 소 : 서울 종로구 종로63가길 31(송인동) 전화 : (02)763-3109
홈페이지 : www.myogaksa.net

도심 속 고요한 휴식공간 “낙산묘각사 템플스테이”

주변 사람, 주변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자신의 마음에 집중해 보세요.

지금 이곳, 현재에 존재함이 내 자신의
진정한 휴식입니다.

도심 속 사찰 묘각사에서 몸과 마음을
쉬었다 가세요.

Where is your mind ?

- ▶ 1박2일 체험, 당일 체험
- ▶ 108배, 참선, 다도 & 스님과의 대화, 예불, 타종, 사찰안내

dongguk UNIVERSITY 



| 동국대학교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양 쾌 석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95卒)

www.guro.go.kr


구로구

구로구청장 이 성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

Tel. (02) 860-2323	Fax. (02) 860-3010
Mobile. 010-4107-0945	E-mail. leesung@guro.go.kr

dongguk UNIVERSITY 



세계속의 새로운 백년을 준비하는
 전통과 저력의 명문사학

| 동국대학교총동창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사랑과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각종 회비와 기금은 동국발전을 위해 소중히 쓰이고 있습니다.

• 회비 · 기금 납부시 성명 · 입학년도 · 학과를 꼭 명시해 주십시오. (단위 : 만원)

회비 국민은행 006001-04-237869
납부계좌 우리은행 1005-302-718184
 (예금주 : 동국대학교총동창회)

〈 2019년 2월 25일 ~ 5월 21일 접수분 〉

금액 · 성명 가나다 순

동국장학회 기부금



전영화 (65경행)
2,000



박대신 (69국문)
1,000



오정석 (72농학)
1,000



홍파스님 (63불교)
1,000



고용규 (70정외)
200

우희명 (70건축) 월 30 / 50만원 누계 : 460만원
 이성훈 (97정보) 월 2만원 누계 : 22만원
 이진혁 (75화학) 월 5만원 누계 : 335만원
 최종태 (57법학) 10만원

회관건립기금 1억원



송석환 (64농경)
동진기업(주) 회장

발전기금 1,000만원



박대신 (69국문)
총동창회장

이사회 · 총회 협찬금 675만원



민홍기 (74경영)
(주)유엔아이 대표이사

화합전진의 밤 협찬금 324만원



문선배 (75경영)
(주)신화종합건설 회장

고문분담금 100만원



명성스님 (64불교)
청도운문사 회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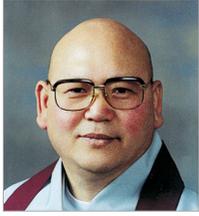
송석환 (64농경)
동진기업(주) 회장



수불스님 (대학원)
안국선원장



심경모 (57영문)
서정연구소 대표



월탄스님 (64불교)
법주사 회주



이석용 (54정치)
前 대한손해보험협회장



이창규 (62경영)
DK메디칼솔루션 회장



이태영 (51사학)
한국국제역사교과서연구소장



자광스님 (64인철)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전순표 (53농학)
(주)세스코 회장



한우삼 (63농학)
태양금속공업(주) 회장

부회장 100만원



공석돈 (79회계)
(주)백상개발 대표



김문선 (79전자공학)
(주)다물시스텍 대표이사



김병은 (92행대원)
연양김씨대중회 명예회장



김석만 (89사대원)
(주)신한 회장



김애주 (76영문) 2백만
동국대 대외협력처장



김진선 (71행정)
前 강원도지사



명우스님 (67불교)
성심사 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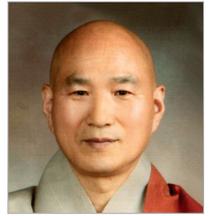
문선배 (75경영)
(주)신화종합건설 회장



법운스님 (95불대원)
청룡사 주지



법조스님 (70불교)
옥천사 회주



성웅스님 (91불대원)
남장사 주지



성월스님 (92불대원)
신륵사



신영태 (81무역)
티디에프코리아 대표이사



오수환 (84법학)
변호사



우학스님 (84선학)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육기동 (61식공)
(주)팔마 대표



윤미정 (81수교)
MJ잉글리쉬 대표이사



이계방 (72법학)
한국석유유통협회 상근부회장



이상진 (96경영)
대풍그린농원 대표



이승성 (76체교)
은민에스엔디 대표이사



정진태 (00행대원)
진우산전(주) 대표이사



중호스님 (81선학)
동국대 기획부총장



진각스님 (09사대원)
송광정사 주지



최대식 (79회계)
K&C세무회계 대표



해운스님 (11불교)
포항 원법사 주지



혜담스님 (01불원) 2백만
계타사 주지



황경환 (87교대원)
(주)진양유조선 회장

부회장

김영순 (65화학) 월 10
이경석 (67도공) 30
최재성 (84불교) 월 8

지도위원 30만원

김동대 (58경제)
김병희 (59사학)
김보열 (57경제)
김봉주 (76행대원)
김성강 (60법학)
김진하 (71무역)
박복식 (57법학)
변종국 (65경제)
서영수 (81행대원)
성낙흔 (82행대원)
신헌태 (54경제)
심현식 (59상학)
안병창 (59상학)
오만식 (90언대원)
윤청광 (59영문)
이상호 (60국문)
이인진 (60법학)
이재형 (64불교)
이점구 (96산대원)
이진호 (64농경)
전진표 (60임학)
조흥기 (58영문)
최병식 (59불교)

이상구 (81인철)
이상만 (64경제)
이영군 (68도공)
이원백 (73전자공학)
이인배 (92경대원)
이학군 (77사교)
임영수 (71무역)
임준 (81체교)
임치성 (88경제)
장송수 (88언대원)
조석규 (68도공)
지재성 (78공업경영)
지종스님 (07한국음악)
진병길 (84국사)
진재경 (73영문)
차형천 (72정의)
채희만 (77전자공학)
최순희 (76수교)
최지섭 (69경제)
하창호 (65농학)
학산스님 (07불문원)
한종명 (77식공)
허남태 (80환경조경)
허정수 (80경제)
홍성하 (65응생)

평생회비 50만원

김문광 (85회계)
이관수 (78경영)
정용방 (82건축)

상임이사 20만원

공영대 (78화학)
권정의 (98대학원)
김강균 (96경영)
김병기 (80법학)
김현권 (64경제)
류복수 (95사대원)
박기덕 (69경영)
박상관 (79행정)
박정현 (82정의)
박종세 (92경영)
손문영 (69토목)
유국현 (79화학)
윤정민 (08한외)
이강욱 (00경영)
이상명 (83경대원)
임식 (73체교)
조수길 (87법학)
진각 화봉사님 (88한외)
한규범 (78경대원)

연회비 3만원

강무등 (64농경)
강부전 (63상학)
강신제 (73토목)
강애영 (83철학)
강용산 (01경영)
강익수 (77건축)
강진영 (87토목)
경규명 (64경제)
고담스님 (08불문원)
고영기 (05수교)
고옥자 (79영문)
고창환 (64경영)
고형중 (64국문)
고희신 (86의학)
공희준 (88정의)
곽상춘 (90언대원)
관오사
관음사
관음사
광덕사
광덕사

이사 10만원

구학모 (90행대원)
김득응 (83사회)
김병우 (65응생)
김영국 (81불교)
김영린 (64법학)
김인순 (80경대원)
김진길 (72행정)
김태용 (91행대원)
박덕진 (90법학)
박봉준 (77경제)
박수열 (89행대원)
박정훈 (80사회)
박천운 (67경영)
백경선 (80불교)
사기순 (84국문)
성순경(원덕) (93불대원)
손양호 (70불교)
신화섭 (84화학)
안상준 (16법대원)
안수일 (80미술)
오선호 (84영문)
우진스님 (03대학원)
우철희 (89경제)
윤대호 (75전자공학)
윤종원 (81한외)
이경현 (64상학)
이권학 (86인철)

김동우 (75통계)
김동원 (60정치)
김동철 (71건축)
김만두 (58정치)
김문관 (80화공)
김문자 (60수학)
김문재 (84국문)
김민정 (90경대원)
김병국 (68경영)
김범동 (92무역)
김병국 (95대학원)
김병상 (58경제)
김병택 (71대학원)
김복식 (62불교)
김석중 (02대학원)
김선제 (01대학원)
김성민 (89경영)
김성윤 (84영문)
김성호 (93행대원)
김세만 (82경대원)
김소연 (99연극)
김순제 (52경제)
김시호 (83농경)
김안국 (71경영)
김연호 (64경영)
김영석 (80회계)
김영진 (84경제)
김영호 (74회계)
김영호 (82경영)
김영호 (99경대원)
김완주 (63통계)
김용근 (76공업경영)
김용삼 (59경제)
김용설 (90화학)
김용원 (01사대원)
김용해 (79행대원)
김용홍 (64경영)
김원철 (68영문)
김유진 (87연영)
김윤기 (64임학)
김윤남 (92경대원)
김은겸 (86농학)
김요조 (58불교)
김익배 (79무역)
김인술 (88경대원)
김인식 (64경제)
김인태 (57영문)
김인호 (69경제)
김일용 (92건축)
김재호 (08사대원)
김정욱 (85행정)
김정의 (61경영)
김종국 (82경영)
김종민 (69공업경영)
김종환 (61불교)
김준 (65통계)
김준근 (89화학)
김지권 (82영문)
김지렬 (09사대원)
김진광 (97행대원)
김진근 (78토목)
김진영 (79전자공학)
김진태 (70무역)
김진동 (96경대원)
김창식 (63국문)
김철수 (73경제)
김춘수 (81화공)
김택유 (79경제)
김판근 (66경영)
김한기 (03행대원)
김한진 (64상학)
김현신 (91교대원)
김형식 (00경대원)
김형업 (82경영)
김혜경 (81가교)
김홍렬 (59경영)
김홍철 (60경제)
김홍식 (64임학)
김희동 (00경영)
나기원 (64경제)
나덕찬 (84회계)
나승규 (08대학원)
남계동 (64임학)

남금광 (63상학)
남시혁 (54정치)
남은우 (90산공)
남장사
남진우 (06전기공학)
노기철 (89경대원)
대용스님 (88선학)
대용스님 (98불대원)
덕림사
덕운사
덕현스님 (89불교)
도갑사
도안사
류기철 (09대학원)
류범열 (82체교)
류수택 (60경영)
맹주옥 (83행정)
명선스님 (74행대원)
묘주스님 (80불교)
무학사
문계술 (88불교아동)
문대성 (56정치)
문수사
문윤희 (56국문)
미림암
민갑룡 (대학원)
민병진 (57정치)
민웅식 (57경제)
박기석 (07전기공학)
박대신 (92영문)
박대신 (92영문)
박덕성 (66식공)
박덕준 (88경영)
박동훈 (03경대원)
박두호 (63경영)
박래학 (61경제)
박민규 (09기계로봇)
박병준 (83건축)
박병환 (82물리)
박부남 (98불대원)
박상기 (84무역)
박상일 (64대학원)
박상현 (91전기공학)
박선규 (60정치)
박성무 (65정의)
박성진 (60정치)
박영길 (62화학)
박영화 (80승가)
박옥정 (16행대원)
박윤식 (79사회)
박익주 (59정치)
박장서 (57사학)
박재원 (86대학원)
박정규 (84경영)
박정민 (79불교미술)
박정민 (69경제)
박종일 (92행대원)
박종철 (98문대원)
박준근 (08행대원)
박준일 (95회계)
박지환 (60경영)
박진영 (88국문)
박치형 (80수학)
박형우 (69경영)
박흥원 (83건축)
반석규 (16경사원)
반야선원 주지스
배상덕 (94북한)
배원 (85농경)
백담사
백성범 (80농학)
백승만 (63국문)
백운사
변봉현 (67자동제어)
변유근 (67법학)
변정용 (76전산)
변종근 (60법학)
보경사
보덕사
보림사
보문사
불락사 10
삼선포교원 원장

삼성암
서거원 (60경제)
서동일 (84경영)
서분도 (82국민윤리)
서석구 (56법학)
서석일 (00사대원)
서승오 (57법학)
서정복 (68수학)
서정학 (81영문)
서창식 (60상학)
서형석 (78공업경영)
석굴암
설안스님 (00대학원)
성기호 (61상학)
성심사
성흥사
소두영 (81경영)
손병성 (80화학)
손상필 (62경제)
손세명 (68법학)
손시익 (97언대원)
손정희 (99언대원)
손창학 (81건축)
손희주 (01경영)
송광사
송성진 (09사학)
송수용 (94행대원)
송운하 (07행대원)
송원진 (04국제통상)
송인재 (88사회)
송재관 (64행정)
송재신 (58법학)
송후중 (66행정)
수경스님 (78불교)
신동기 (03행대원)
신상근 (01경영)
신석희 (60사학)
신영옥 (95불대원)
신영철 (57국문)
신용인 (84행대원)
신용현 (80한외)
신재근 (81경영)
신진우 (83경제)
신철호 (83화공)
신태환 (63법학)
신헌주 (72사교)
신희중 (76통계)
심광보 (58물리)
심규선 (61물리)
심기열 (81회계)
심명호 (67응생)
심재봉 (83중문)
심재호 (83법학)
심종구 (68상학)
안경수 (59상학)
안군선 (85회계)
안수병 (56법학)
안심사
안심사
안정상 (85화공)
안한상 (66국문)
안희백 (71토목)
약산선원장스님
약천사
양용자 (03불대원)
여관우 (69경제)
엄종호 (56법학)
엄호천 (95산대원)
여은규 (55영문)
여인근 (58임학)
여환준 (67법학)
연등사
연화사
염동훈 (58법학)
염모암
영안스님 (74승가) 6
영월포교당 주지
오건석 (64경영)
오명석 (88경대원)
오상진 (81법학)
오성만 (82미술)
왕수일 (83무역)
용주사

용천사
우근식 (98경대원)
우현의 (10불대원)
원각사
원봉스님 (02불문원)
원종대 (61정치)
원철스님 (01불문원)
월성사
월정사
유기봉 (73농학)
유두상 (70경제)
유상갑 (64법학)
유상번 (70행정)
유영식 (55법학)
유호열 (53농학)
유환식 (54경제)
육문군 (96경제)
윤도경 (88전산)
윤종욱 (81행대원)
윤찬희 (78화공)
이건왕 (82건축)
이경수 (88토목)
이경우 (48국문)
이경우 (58경제)
이경자 (94불대원)
이규석 (84회계)
이규현 (61경제)
이규현 (85대학원)
이균형 (59정치)
이근욱 (65연영)
이기학 (82경영)
이낙호 (92행대원)
이남영 (94행대원)
이덕수 (75법학)
이동우 (56법학)
이동형 (76공업경영)
이득현 (72국교)
이련 (64국문)
이맹우 (91불대원)
이범찬 (82행대원)
이병길 (67화학)
이병직 (71통계)
이상삼 (80건축)
이상용 (75건축)
이석봉 (86행대원)
이석원 (76전기공학)
이석준 (01경제)
이석호 (77행정)
이신래 (94행대원)
이선주 (90의학)
이성규 (86경제)
이승박 (79한외)
이승희 (92행정)
이시우 (61정치)
이신철 (56법학)
이영권 (00국대원)
이영길 (99행대원)
이영보 (59법학)
이영석 (72농경)
이영재 (81법학)
이영주 (94경대원)
이용국 (74경영)
이원생 (61법학)
이은기 (73법학)
이은식 (58경제)
이은집 (79교대원)
이의용 (95경대원)
이일환 (87행대원)
이장걸 (56사학)
이장환 (69무역)
이재동 (97불대원)
이재봉 (65물리)
이정자 (67불교)
이정호 (74경영)
이정희 (83통계)
이준근 (95경제)
이종만 (05국제통상)
이종서 (71법학)
이종연 (85농경)
이종찬 (56국문)
이종춘 (90조경)
이좌범 (64사학)
이주영 (80경대원)

이주환 (55정치)
이준재 (71화공)
이준혁 (88일문)
이중량 (55정치)
이채근 (85전산)
이철희 (79전기공학)
이태재 (79경영)
이태한 (66경영)
이하람 (04경영)
이학설 (56법학)
이한규 (77건축)
이해규 (57법학)
이현준 (00전기공학)
이홍근 (78경대원)
인형식 (61영문)
인환스님 (75승가)
임경섭 (57사학)
임규영 (83법학)
임금동 (81경영)
임만혁 (76정의)
임인규 (78승가)
임종홍 (86경대원)
임헌준 (81불교)
자비사
장경우 (61상학)
장광수 (80경영)
장명근 (58법학)
장봉기 (87교대원)
장석기 (58정치)
장성원 (97법학)
장세인 (69정의)
장영상 (66식공)
장영상 (66식공)
장윤스님 (92불대원)
장희범 (75식공)
전문순 (81회계)
전병욱 (04법학)
전수식 (56법학)
전영준 (83국사교육)
전은영 (70화학)
전익홍 (85법학)
전전홍 (61경영)
전정수 (03불대원)
전철수 (74연영)
정갑동 (69영문)
정금연 (72행대원)
정동민 (67경영)
정상용 (69정의)
정석승 (59상학)
정석원 (76경제)
정수익 (82사학)
정승석 (75인철)
정심사
정운영 (81전산)
정유식 (86법학)
정윤식 (69법학)
정의복 (86경영)
정이조 (79경대원)
정일준 (71경제)
정준규 (81영문) 10
정창숙 (94교대원)
정택열 (83화공)
정판석 (68경제)
정현 (91화학)
정호심 (84가교)
정흥진 (95불대원)
조남풍 (88행대원)
조덕빈 (91수학)
조만수 (70경영)
조병구 (67식공)
조병권 (85경대원)
조석래 (75전자공학)
조선주 (81행대원)
조성현 (84사회)
조신래 (87체교)
조영래 (89일문)
조용범 (85경제)
조정현 (01교대원)
조준근 (61상학)
조한은 (61상학)
조현철 (77화공)
중앙사
지산스님 (88교대원)

지용진 (82경영)
진만스님 (77승가)
진성기 (99행대원)
진성스님 (76승가)
차대영 (89경영)
차준환 (70전자공학)
채완식 (59정치)
채희석 (90법학)
천병일 (62화학)
천은사
철은스님 (86교대원)
청곡사
청련암
청운스님 (93불대원)
최근수 (93산대원)
최낙석 (59경제)
최동욱 (76화공)
최동지 (75토목)
최무남 (70경영)
최민석 (03전자공학)
최본식 (59상학)
최삼범 (90물리)
최상기 (74전산)
최성섭 (65식공)
최승천 (91불대원)
최은기 (82독문)
최인택 (84건축)
최일상 (66경제)
최재오 (57법학)
최재유 (08대학원)
최종태 (57법학)
최종열 (56정치)
최진 (72국교)
최진경 (84고고미술)
최창호 (74전산)
최철수 (69무역)
최효식 (64사학)
최홍길 (58경제)
칠불사
탁병운 (76공업경영)
편우장 (88의학)
표종섭 (85고고미술)
하림스님 (88선학)
하영태 (55법학)
하혜순 (92불대원)
한규동 (79행대원)
한도수 (58경제)
한성권 (80경영)
한영수 (76수학)
한인만 (64국문)
한홍택 (82무역)
현각스님 (94선학)
현우스님 (00선학)
현정스님 (97불대원)
혜안스님 (96선학)
혜은사
호영송 (62연영)
홍기운 (82경영)
홍기표 (58정치)
홍승하 (70농학)
홍제스님 (84선학)
황종관 (68경영)
황병향 (03불문원)
황용인 (85교육)
황윤걸 (60임학)
황중환 (96행정)

정기총회 협찬금

여자총동창회
(회장 : 김애주) 50

발전기금

김종필 (82행정) 월 3
누계 : 123만원
동명사 월 2
누계 : 124만원
묘주스님 (80불교) 20
심재봉 (83중문) 10

All For One

Leading you Toward a Greater Future

더 나은 미래 환경을 위해

1990 설립, 인원295명
신용등급 A

시스템 통합 및 소프트웨어 관련 산업

특화된
강소기업

벤처/INNOBIZ 인증

사회적 기업 - ITS 사회적 편익 12조원,
건설 비용의 5%로 도로혼잡 감소,
온실가스 연간 4만 톤 감축,
상생발전과 일자리 창출

전문가
집단

'99년 첨단교통연구소
설립

글로벌 시장 진입 추진

종합서비스
기업

01 첨단 교통관리 시스템 (ITS)

▶ ITS 시스템

-  UTMS
광역 교통관리시스템
-  DSRC
교통정보시스템
-  ATES
자동 교통단속시스템
-  FTMS
고속도로 교통관리 시스템
-  TCS/ETCS
요금징수시스템

▶ C-ITS

운전자와의 양방향성 정보공유로
자율주행자동차 실현가능성을 향상

▶ 스마트톨링 시스템

교통환경의 스마트 하이웨이
교통운영 및 다차로 무정차
요금징수가 가능한 융복합적
기술의 교통관리시스템



02 교통신호 제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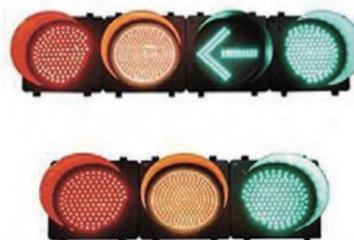
▶ 스마트 교통신호제어기

제어기 개별전력량
측정, 관찰카메라로
보안, 방범 기능 수
행 및 DC화로 소형화



03 LED 신호등

- ▶ LED 신호등 - 신제품 개발
- ▶ 음성신호기 내장형 보행등
음성안내시스템을 일체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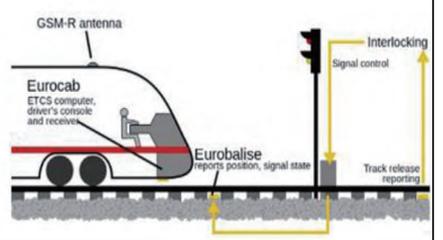
04 무인단속 CCTV

- ▶ 기능 선택형 무인단속 시스템
검지센서가 비매설형 (영상식),
과속/신호/포리물기/꺼어들기
통합단속 가능



05 철도신호시스템

- ▶ 철도 설계/관리 시스템
- ▶ ATP/CBTC/CTC 시스템
통신기반 열차 보호, 제어장치



진우산전주식회사

[본 사]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149 (신사동, 진우빌딩) Tel : 02-868-0500 Fax : 02-6011-9205
[공 장] : 경기도 포천시 군내면 마전길 25-1 Tel : 031-541-6251 Fax : 031-541-6255
[마포지점] :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미산로 11길 24 (성산동) Tel : 02-325-6251~4 Fax : 02-325-6255